노년정책자료집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감리교회의 노년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머 리 말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노인인구의 숫자가 출생인구의 숫자를 역전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노인과 관련된 복지정책 및 교육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여타 나라들과 견주어 볼 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일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었으며, 노인은 비생산적인 존재로 치부해온 것에 기인한다. 그로인해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정책이 복지 외에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마저도 가족의 의무라는 명목 하에 외면해왔던 것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노인공경 및 노인부양을 더 이상 가족만의 부양이나 의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회는 노인공경과 노인부양을 사회적 부양과 사회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고령화를 통한 노인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이며, 노인 돌봄은 곧 우리의 부양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이 늙어가면서 교회도 늙어가고 있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 과거 유럽의 교회들을 견학할 때, 흔히 했던 말 가운데 하나였던 “교회가 노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혹은 “유럽의 교회는 노인들 밖에 없다”라는 말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늙어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한국 고령화 속도에 발맞춰 목회의 방향과 사역의 실례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시점에 고령사회를 맞아 늙어가는 교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서기 위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복음의 바탕 하에 노인 성도와 함께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감리교회의 현 상황과 노인 목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존에 없었던 노인목회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과 2장은 한국사회의 고령화 실태, 한국감리교회의 노인목회에 대한 인식, 노인목회의 의미와 중요성으로 구성했으며, 제3장과 4장은 노인목회의 실례로서 실천적인 영역으로 노인여가, 사회복지, 시니어클럽, 죽음으로 구성하였다.

“내가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나는 늙은 것이 아닙니다.”(독일 한 노인의 인터뷰 중)

“교회가 노인 성도를 향해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노인 성도는 교회를 위한 어떤 사역과 봉사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노인의 건강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비록 이 책이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노인목회의 필요성과 모형에 대한 작은 몸짓으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이 책이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책을 필두로 하여 한국 감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한 노인목회의 바람직한 모형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집필자들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10월

노년정책위원장 김 정 희 교수

목 차

제 1 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21세기 감리교회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_ 10
– 김정준(신광교회 담임목사/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회의 역할 재 이해 _ 30
– 김정희(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주안교회 소속목사)

21세기, 노인목회의 필요성 _ 45
– 김정희(목원대학교 신학과 교수/주안교회 소속목사)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노인목회 실태조사 _ 51
– 김정준(신광교회 담임목사/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제 2 장
노인목회의 네 가지 요소

행복한 노인을 위한 예배, 행복한 노인을 위한 교육, 행복한 노인을 위한 봉사 및 선교 _ 64
– 최범선(용두동교회 담임목사)

제 3 장
노인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목회 방법론

한국사회 내 노인의 여가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여가복지와 노인목회) _ 84
– 최성우(단원구노인복지관장)

한국사회 내 노인시설 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사회복지와 노인목회) _ 96
– 이은정(마포구노인복지센터 원장)

한국사회 내 삶의 질 향상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시니어클럽과 노인목회) _ 106
– 방두석(당진교회 담임목사)

제 4 장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기와 노인목회

노년기와 죽음 _ 114
– 윤득형(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외래교수)

제 1 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 21세기 감리교회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회의 역할 재 이해
- 21세기, 노인목회의 필요성
-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노인목회 실태조사

제 1 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21세기 감리교회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1)]

21세기 세계적 맥락에서 한국사회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젊은 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인 세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데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동력의 감소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부양비용의 증대 및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노인들의 조기퇴직에 따른 경제적 빈곤, 고독, 자살, 세대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2)]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1)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 제50집(2017. 6)에 게재된 것으로 재편집하였음을 밝힘.

2) 문진수, 『은퇴절벽』 (서울: 원더박스, 2016), 217-219; 253-255.

I.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노인문제

1. 신자본주의 경제체제 : 하류노인

오늘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존의 토대는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더구나 오늘날 신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과 행복을 위한 상호공존의 경제활동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인 경쟁과 성과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그것을 일컬어 탐욕경제라고도 한다.[3)]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본주의 금융 권력의 화폐정책은 저성장에 빠진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기형적 부의 양극화는 중산층 소비력의 약화는 물론 해체를 촉진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양극화 흐름에서 직장 내 은퇴나 퇴직을 맞이하는 후반기 중년세대와 노인들은 안전한 경제적 삶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끝없는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잉여생산의 도구로 자신을 투기해야 한다. 이러한 잉여생산의 도구가 된 인간 주체들은 과잉성과를 위하여 노동력을 소비하는 피로사회의 젊은 세대들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서 노인들이란 성과를 위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주체성을 상실한 잉여인간일 뿐이다. 사실, 돈을 삶의 유일한 가치와 목표로 삼고 있는 신자본주의 시대에 경

3) 쑹훙빙(宋鴻兵)/홍순도 역, 『탐욕경제』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14), 머리말.

제활동의 역할과 그에 따른 수입의 상실은 사회적 죽음의 선고에 다름이 아니다.[4]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으로 더 이상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자살, 혹은 고독사의 형태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세계 1위이다. 2009년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 전체 빈곤노인 중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인구 비율은 45%인데, 이는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4%, 아일랜드 31%를 넘어서는 수치이다(OECD 2009년 통계). 2011년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회원국 가운데 1위(45.1%)로, 2위는 멕시코(28.0%), 호주(26.9%) 순이었다. 한국의 노인자살률 또한 세계 1위이다. 2016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모두 13,513명으로 전년 대비 323명(−2.3%) 감소하였고,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37명이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1.8명(7.5%) 늘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0.7명(−2.7%)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은 감소하였지만, 노인의 자살은 더 늘었다.

70대의 자살 사망자는 1년 전보다 8.5%, 80대는 6.4%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 자살률을 OECD 국가 간 자살률의 평균 12.0명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25.8명(2015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5]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사회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독거노인의 증가율은 2000년 54만/340만 명(16.0%), 2012년 119만/589만 명(20.2%), 2013년 125만/613만 명(20.4%)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혼이혼(결혼 20년차 이상 부부기준)은 2009년 28,261건, 2010년 27,823건, 2011년 28,299건, 2013년 32,433건 등이다(2014년 사법연감).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의 변화 추이는 2010년 100만 명(19.4%), 2012년 120만 명(20.0%), 2015년 138만 명(20.8%), 2025년 220만 명(21.8%), 2035년 340만 명(23.3%) 등으로 예측하고 있다(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독거노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자립노인 79만 명, 관심필요노인 10만 명, 취약노인 20만5천명, 위기노인(고독사예비군) 9만5천명 등으로 추정된다.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가져온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결과물은 경쟁과 성과를 중시하는 삶의 환경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의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노인목회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 곧 하류노인, 노인자살, 독거노인, 황혼이혼, 고독사 등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함께 구체적인 목회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포스트모더니즘 : 전통과 권위의 해체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에토스와 대립 · 상충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가치관이나 에토스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국가이념으로 자리했던 유교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권위적, 위계적, 보수적, 폐쇄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17년 LG경제연구원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13년 뒤에는 오랜 유교적 전통의 잔재나 과거 고성장 시대의 유상인 전근대적 요소(대표적으로 관혼상제와 관련된 과시와 낭비, 체면치레 문화,

4) 김찬호, 『모멸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85.
5)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 (2016); OECD STATUS DATA(2016. 9).

공공부문의 전시성 행사와 선심성 예산지출 등)들은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성장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직면하게 될 예산 제약(가처분소득, 정부와 공공 부문의 예산 정체 또는 감소)이 한국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뿌리부터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6)]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사조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따르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에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사회 노인들은 시대의 에토스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크리스찬 노인들은 이 시대의 삶의 문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변혁의 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의 문화변혁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부과되는 신앙적 삶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각 세대들이 자신들의 삶의 조건을 기독교적 가치의 문화로 외재화(externalization)하려는 구체적인 작업이어야 한다.

3. 뉴 테크놀로지시대 : 미디어 소수자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글로벌 기업 구글(Google)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는 한국 최고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총 5번의 세기의 대국을 치렀다. 그 결과 인간지능의 대표자 이세돌 9단은 단 한판만 승리하였다.[7)] 전 세계인들의 관심 속에 첫 날 대국은 글로벌 SNS 네트워크 유투브(YouTube)로 생중계되었으며, 56,000명이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었다. 2016년 세계적인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시대에 도래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지능(hyper-intelligent), 초연결성(hyper-connection)이다. 새로운 미래를 바꿀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 기하급수적인 변화의 속도, 개인과 기업, 사회와 경제 전 분야의 범위와 깊이 등은 예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초연결 시대의 미덕은 속도와 변화, 유연함과 창조성이 강조된다. 노인들의 특성인 느림과 보존, 경직성과 정체성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미덕일 수 없다. 태곳적 신화세계와 전통적 내러티브 세계에서 흔히 노인은 권위의 담지자, 혹은 지혜로운 현자로 추앙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반의 뉴미디어 세계에서 노인들의 권위와 지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공유, 전달, 유통, 확산 및 재 확산 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은 뉴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향유하지 못하는 소수자로 머물게 된다.

4. 탈종교 시대 : 영성의 추구

19세기 유물론적 공산주의자 마르크스(K. Marx, 1818-1883)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

6) LG경제연구원, 『2030 LG경제연구원 미래보고서 빅뱅퓨처(요약본)』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7), 10-11.

7) "지도-알파고…2016년 인터넷 4대 핫이슈는?" from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1208152956&type=det&re=#csidxe2128defc2a47c7bbef5f7d951d4838 2016.12. 접속.

취로 인해 피폐해진 삶을 살면서도 현실도피로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21세기 과학주의자들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이 과학적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신앙심이 고조될 때에 활성화 되는 뇌 전두엽의 부분과 아편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타대와 하버드대, 그리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공동연구진은 종교를 믿을 때나 영적 체험을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과잉활성화 된다고 밝혀냈다.[8] 21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2006)』에서 종교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해한 망상으로 하루 속히 폐기 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한다.[9] 이와 같이 근대이후 성서(계시)의 진리와 신앙의 가치는 다양한 형태, 즉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사상, 이데올로기, 과학, 기술 등 다양한 세속의 도전에 직면해 왔다. 18세기 근대 계몽주의 철학은 이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성서의 계시와 신앙(믿음)의 고유한 가치를 부인하거나 희석시키고자 하였다. 19세기 유물론자 칼 마르크스는 세계의 실재를 상부구조(정신세계)와 하부구조(물질세계)로 구분하면서 물질세계에 대한 역사적 필연으로서 공산주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의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정신과 영혼을 믿는 기독교를 부인하고 적대시하였다. 20세기 이후 기술과학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기술과학이 가져온 역사의 진보와 발전으로 인한 낙관적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기독교의 쇠퇴는 유럽에서 현저하며 북미지역에서도 상당한 쇠퇴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쇠퇴의 원인은 한마디로 세속화라고 할 수 있다. 이원규는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쇠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합리화(rationalization)의 영향이다. 즉 전통적 가치보다는 효율성과 능률을 강조하는 합리화는 종교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적 수준의 발전이다. 즉 교육수준, 과학의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 믿음 약화되고, 종교참여는 낮아진다. 셋째, 도덕적, 문화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만연하면 종교전통은 쇠퇴하고 종교성이 약화된다. 넷째, 종교제도와 그 권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온다.[10]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교회성장의 감소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원규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상황요인(사회경제적 요인)이다. 한 사회의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의 소득증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위기감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에 관심이 증가하여 종교에서 멀어지게 된다. 둘째, 교회적인 요인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이다. 2008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독교(개신교)에 대한 공신력의 상실 이유는 교파분열, 양적 팽창주의, 자기 교회 중심적, 성도의 신앙생활 방향 제시 못함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기독교(개신교회)가 더욱 신뢰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교회지도자(25.5%), 교회운영(24.4%), 교인(17.2%), 전도활동(16.2%), 사회활동(15.4%) 순으로 지적되어 목회자의 자질 향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11]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쇠퇴현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공신력 상실과 목

8) "종교는 인민의 아편... 과학으로 입증됐다." 아시아경제, 2016.12.5.

9) Richard Dawkins/이한음 역, The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 (서울: 김영사, 2006); 김기석, 『종의기원 vs. 신의 기원』 (서울: 동연, 2009), 5-6.

10) 이원규, 『한국교회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122-123.

11) 이원규, 『한국교회 위기와 희망』, 132-133.

회자의 자질 부족은 한국교회의 목회와 목회자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한 하르트만(Warren J, Hartman)은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설명한다.[12] 교인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 받고 자기를 원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다른 교인들이 그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교회가 제공하는 것(예컨대, 설교나 가르침)이 적절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리고 너무 바쁘거나 여가를 추구할 때 교회를 떠나기 쉽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탈종교 시대에 교회와 목회 그리고 신앙의 본질 회복으로서 기독교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에 충실한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목회는 지난 시대의 관심, 즉 교세확장, 양적 팽창, 헌금 강조, 자기 교회 중심적 행태와는 달리 말씀의 능력, 신앙의 성장과 성숙, 영적 리더십, 도덕성 회복, 사회적 실천, 창의적 비전 제시, 변화의 대처 능력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I. 기독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천

1. 목회의 본질과 기능의 변화

목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에 기초한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회는 '찾아다니심'(visiting), '가르치심'(teaching), '복음전파'(preaching), '고치심'(healing)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파하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마 9:35-36).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굶주림'(hungry), '목마름'(thirsty), '나그네'(stranger), '헐벗음'(naked), '질병'(sick), '옥에 갇힘'(prison) 등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었다. 이러한 목회사역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으로 강조되었다(마 25:35~36).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 즉 '가난한 자'(the poor), '포로 된 자'(the captives), '눈먼 자'(the blind), '눌린 자'(the oppressed) 등에게 복음전파, 자유하게 함, 회복,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눅 4:18~19). 예수님의 목회는 오늘 여기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며, 사회적 소외와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자유함과 해방을 위한 사역에 초점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구원에 이르도록 모두를 초청하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천이었다. 무엇보다 개신교회의 목회와 실천은 성서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근거해야 한다.

2. 18세기 : 존 웨슬리의 목회

감리교회의 목회 원형으로서 18세기 존 웨슬리의 목회는 영국 성공회의 신학과 영성생활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웨슬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한 신앙경험(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신학과 영성생활, 더 나아가 목회사역을 새롭게 활성화 시켰다.[13] 웨슬리의 쇄신된 영성생활

12) Warren J, Hartman, Membership Trends: A Study of Decline and Growth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49–1975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76); 이원규, 『한국교회 위기와 희망』, 136.

은 당시 영국의 제도적 종교(성공회)의 인습적 틀을 뛰어 넘어 생명력 있는 목회활동으로 구체화 되었다. 당시 영국사회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부유해진 산업자본가들의 삶과는 반대로 가난한 대중들은 적은 소득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웨슬리의 성서적 깨달음과 영적 쇄신은 자신의 목회활동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던 동시대의 사람들과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웨슬리의 목회는 영국 국교회의 제도와 권위, 그리고 신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영혼 구원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으로 확대되었다. 웨슬리의 목회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서의 가르침과 체험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다양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조직을 통하여 구체적이게 실천하였다. 이러한 웨슬리의 목회실천은 자신의 거룩한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타자 이웃들의 삶의 변화는 물론 국가와 세계를 변혁시키는 차원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3. 20세기 이후의 목회

20세기 현대사회의 급진적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 또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따라 목회의 관점과 접근방식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20세기 초반 투르나이젠의 목회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대화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14] 다음으로, 20세기 중반 힐트너의 목회신학은 전통적인 신학과 현대 학문과의 대화를 통한 목회의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다.[15] 20세기 중반 힐트너의 목회신학은 점점 복잡해진 현대 문명사회의 상황에서 소외된 인간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학문적, 과학적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콕스는 비인간화 된 세속도시 안에서 현대교회의 주요 과제는 케리그마(kerygma), 디아코니아(diakonia), 코이노니아(koinonia)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6] 그것은 20세기 현대사회의 세속화와 비인간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를 치료하고 변혁시키고자 하는 목회적 전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후반에 주목할 만한 목회신학자 메서는 현대사회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에 몰두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화해와 사회정의를 위한 열린 목회를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17]

20세기 이후에 전개된 목회신학의 특징은 성서에 기초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수용하면서도 현재적 삶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려는 형태로 발전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국교회의 목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에 그 초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변화하는 세계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의 피조물들(하나님, 인간, 사회문화, 자연 등) 사이에 파괴된 상호관계성, 즉 소외되고, 파편화되고, 배제된 인간의 삶의 회복에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3) D.L. Watson,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1985), 11–12; 서영석, "웨슬리 교회의 이해와 교회일치운동,"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 63–64.

14) Eduard Turneysen/박근원 역, 『목회학원론』,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11.

15) S. Hiltner, Preface to Pastoal Theology (New York: Abingdon Press, 1958), 89–171; 이기춘,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1989), 19.

16) Harvey Cox/민경배 외 5인 공역, 『세속도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제6장 참조.

17) Donald E. Messer/이면주 역, 『새 시대 새 목회』 (서울: kmc, 2012), 120–121.

Ⅲ. 21세기 노인목회의 새로운 접근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지배하는 한국사회 목회의 세계적 상황은 인간의 실존과 삶의 조건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시대의 노인목회는 무엇보다 노인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학적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구원 사역에서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전개된 기독교회 목회사역의 전통과 실천에 투영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로서 세계적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는 신학적 작업이라 하겠다.

1. 존엄한 삶에 주목하는 노인목회

21세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시대 목회의 관심은 무엇보다 노인들의 존엄한 삶의 방식에 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생한 중요한 사회문제는 계급간의 갈등, 즉 대량생산에 따른 이윤을 독점하는 자본가와 거기에서 소외된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한 상태에 처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산업자본주의시대의 목회의 특징은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되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주요 관심이었다. 달리 표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성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18세기 이후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노인목회는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 유대감, 건강 등을 상실한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 즉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돌봄의 형태를 반영한다. 그것을 일컬어 노인목회의 생존 패러다임이라 부르고자 한다.

21세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현대인들의 삶은 무엇보다 자기착취적인 치열한 경쟁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중한 일의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18]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적 이윤의 몫은 대부분 자본가와 CEO(전문경영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신자본주의 사회는 근대사회 이후에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어쩌면 오늘날 탈근대산업사회는 이전 근대산업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형식이 보다 정교화 된 형태, '20 대 80' 혹은 '승자독식'이라는 말로 그 사회적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상황에서 이미 높아진 소득수준과 장수사회 속의 노인들은 경제적 소외의 그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모멸감으로 고통을 당한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본주의 맘몬사회에서 돈이 많은 일을 좌우하고 돈 때문에 모멸감을 맛보기 일쑤인 현실 가운데 노인들이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활보장은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19] 하지만 기독교 신앙과 목회는 더 나아가 돈의 논리를 뛰어 넘는 삶의 근원적 가치에 눈을 뜰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장수가 불행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잉여인간으로 전락한 노인들의 주요 관심과 욕구는 기본적인 생존은 물론이며 더 나아가 존엄한 삶의 방식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18) Han Byung Chul/김태환 역, Müdig Keits Gesellschaft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2), 6.
19) 김찬호, 『모멸감』, 240.

것이라."(마 4:4)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21세기 목회는 사회적 약자에 위치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함께 존엄한 삶의 의미와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 노인목회의 존엄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2. 포스트모던적 삶을 재구조화하도록 돕는 노인목회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과 사고, 라이프 스타일의 재구조화에 도움을 주는 목회적 지원과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정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근대적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모더니즘의 한계성, 즉 진리의 절대성, 거대담론, 보편성, 전통과 권위 등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추구한다.[20]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에토스는 젊은 세대의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다. 반면, 노인들은 근대 모더니즘에 대한 진리의 절대성, 보편성, 전통과 권위 등은 모든 면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 성향이 몸에 젖어있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노인세대의 전통과 보수적 성향, 젊은 세대의 혁신과 진보적 성향은 흔히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예컨대, 노인들은 '꼰대'로 호명된다. '꼰대'라는 말은 본디 우리말의 은어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는 말, 혹은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네이버 어학사전). 그러나 요즘 '꼰대'의 뜻은 확대되어 현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예컨대, 여러 방면(나이, 직위, 군번, 학번 등)에서 자신보다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거나, 아랫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꽉 막힌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21] 꼰대는 두 부류로, 첫째는 아랫사람들이 더 잘되라는 의미에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 가르쳐주다 꼰대로 취급받는 사람이다. 둘째는 아랫사람들의 변화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강요하다 꼰대로 취급받는 사람이다.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류의 꼰대들은 자신의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후배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경우가 많으므로 일방적 의사소통보다는 양방향적 의사소통으로 바꿀 것을 권한다. 즉 후배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고, 대화 방식을 취해 후배를 존중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부류의 꼰대들은 이전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나 겪었던 일에 얽매여 그 일을 일반화하고, 아랫사람들이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피해가거나, 겪지 않거나,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스마트폰의 개발로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꼰대들은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22] 그러므로 노인, 곧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는 먼저 마음을 열고 젊은 세대들의 변화된 사고와 삶의 방식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38)고 가르친다. 이 말씀의 교훈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는 인간의 삶은 관점과 태도가 보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오

20)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31, 184-190, 192-196; Stanley J. Grenz, 김운용 역,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WPA, 2010), 37-39.

21) 메인블로그에는 꼰대를 규정하는 체크리스트 6하 원칙을 Who(내가 누군지 알아), What(뭘 안다고), Where(어딜 감히), When(왕년에), How(어떻게 나한테), Why(내가 그걸 왜) 등으로 제시한다.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메인블로그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wentyseven27&logNo=220950031812 2017.3.18. 접속.

22)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메인블로그 참조.

늘 새로운 시대는 미래 세대들이 주도해야 하며, 노인은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을 격려하며 동시에 존경을 받아야 한다. 노인세대들의 지나간 기억과 추억을 현실의 지위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고집하고 주장하면 그것은 곧 세대 간의 소통과 문화적 단절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세대들이 젊은이들과의 소통과 공존을 위해서는 그들의 시대정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젊은이들은 노인세대들에 대한 존경과 이해가 요청된다. 그것은 노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경이 아니라, 인생은 먼저 살아온 선배세대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의미한다.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 한국교회의 노인목회는 젊은 세대와의 세대 간의 단절, 즉 경제적 이해에서 파생되는 간극, 사고와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의 차이에서 표출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미디어시대 소수자 노인을 돕는 목회

테크놀로지시대 미디어 소수자로서 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재적응을 위한 목회적 지원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뉴 테크놀로지(특히 정보통신기술)는 지식과 정보들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빠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행기, 선박, 초고속열차, 자동차 등 빠른 운송수단의 발전은 현대인들의 삶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다시 말하여 뉴 테크놀로지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빠른 운송수단은 현대인들의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급격히 변화시켜 놓았다.[23]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뉴 테크놀로지와 신자본주의가 결합된 디지털사회에서 정보화는 인간생활에 풍요함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역기능(사생활 침해 및 감시, 지적 재산권 문제, 바이러스 유포 및 해커 침입, 사이버 범죄와 폭력 등)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의 불평등 문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24] 오늘날 지식과 정보를 권력과 자본으로 경쟁하고 활용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 인지적 차원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정보 격차 혹은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 마련이다. 또한 노인들은 디지털사회의 정보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여 디지털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예컨대, 최근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전적 전자사기 행태인 '보이스 피싱(voice pishin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시 말하여 노인들은 디지털사회의 혜택과 함께 그 역기능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한국교회 노인목회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정보격차와 불평등, 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탈종교시대 영성회복을 돕는 노인목회

탈종교시대 노인들의 의미 있는 삶을 돕기 위한 기독교 영성의 추구와 회복을 위한 목회실천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기

23) Robert J. Schreiter, The New Catholicity: Theology between the Global and the Local. New York: Orbis Books, 1997.

24) 박재흥, "디지털 혁명과 정보 불평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98-99; Jan van Dijk/배현석 역, 『네트워크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9-10.

독교는 존경과 신뢰를 상실하여 선교와 목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세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사고와 철학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왔다.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경제, 포스트모더니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등장한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로보틱스(Robotics), 인공지능(AI)[25] 등은 종교(기독교)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거시적으로 20세기 후반 서구 기독교권(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는 양적 · 질적인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의 정체를 넘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교회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돌봄의 목회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독교 영성회복의 구체적 방안이 될 것이다.

25) Klaus Schwab/송경진 역,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2016), 24-27.

참고문헌

김찬호(2014). 모멸감. 서울: 문학과지성사.

문진수(2016). 은퇴절벽. 서울: 원더박스.

박재흥(2000). 디지털 혁명과 정보 불평등.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서영석(1997). 웨슬리 교회의 이해와 교회일치운동.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쑹홍빙(2014). 탐욕경제. 홍순도 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신국원(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김기석(2009). 종의 기원 vs 신의 기원. 서울: 동연.

이기춘(1989). 한국적 목회신학의 탐구. 서울: 감리교신학대학출판부.

이원규(2010).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통계청(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Byung-Chul, Han(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Cox, Harvey.(1992). 세속도시. 민경배 외 5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Dawkins, Richard.(2009). 만들어진 신. 이한음 역. 서울: 김영사.

Dijk, Jan van.(2004). 네트워크사회. 배현석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Grenz, Stanley J.(2010).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김운용 역. 서울: WPA.

Hartman, Warren J.(1976). *Membership Trends: A Study of Decline and Growth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49-1975.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Hiltner, Seward.(1968). 목회신학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LG경제연구원(2017). 2030 LG경제연구원 미래보고서 빅뱅퓨처(요약본). 서울: 한국경제신문.

Messer, Donald E.(2012). 새 시대 새 목회. 이면주 역. 서울: kmc.

Schwab, Klaus(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 현재. Schreitter, Robert J.(1997). *The New Catholicity: Theology between the Global and the Local.* New York: Orbis Books.

Thruneyzen, Eduard.(1979). 목회학원론. 박근원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Watson, D.L(1985). *The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메인블로그 fr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wentyseven27&logNo=220950031812 2017.3.18. 접속.

"종교는 인민의 아편...과학으로 입증됐다." 아시아경제. 2016.12.5.

"지도-알파고…2016년 인터넷 4대 핫이슈는?" from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8152956&type=det&re=#csidxe2128defc2a47c7bbef5f7d951d4838 2016.12.08. 접속.

제 1 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회의 역할 재 이해[1)]

2007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가 고령인구가 되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는 오는 2018년,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약 14%가 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서 이를 '압축적 고령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고령화'에 대해 주목하게 만들었다. 고령화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고령자(노인)의 인구비율이 점차로 많아지는 현상 또는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2)] 이는 출생률에 비해 고령률이 높아지며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1.24인 저출산 국가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있다.[3)]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바로 노동이 가능한 생산인구의 수가 저출산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데에 반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사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한국 교회 역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교단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정확한 통계조사자료는 없지만[4)] 농촌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또한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이미 초고령교회[5)]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타 교회들은 농촌교회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맞물려 교회 내 고령화 현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고령목회' 혹은 '노년목회'에 대한 깊은 반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교회는 사회와 달리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못하고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는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노인 성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회교육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본 논문은 목원대학교 신학연구소편, 신학과 현장 제27집 (2017)에 게재된 것으로 재편집하였음을 밝힘.

2) 다음 백과사전 홈페이지 인용,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5278.

3) 소비라이프 홈페이지, 2016년 7월 25일에 최종수정,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0.

4) 감리교의 경우 교단 내 노인 성도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5) 초고령교회란 초고령사회와 대비시켜 총 성도 숫자 중 노인성도의 숫자가 20% 이상일 때 지칭한다.

Ⅰ. 한국 사회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이해

1. 한국 사회와 고령화

현재 한국은 출산율 1.24%인 저출산 국가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불안한 사회구조에 기인한다. 현재 청년들의 취업률은 사상 최저로서, 청년백수 100만 시대가 되었다. 불안한 고용상태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이다. 취업에 대한 불안은 미래를 담보로 할 수밖에 없기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결혼을 하더라도 만혼이 일반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만혼으로 인한 난임의 문제는 이제 가정 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6]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양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은 자녀를 가지지 않거나 '한 가정 한 자녀'를 추구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출산의 현상은 매우 당연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한국사회 내 노동이 가능한 생산인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청년들의 위와 같은 문제는 기존 인구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화이다. 물론 고령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전형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의 고령화에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단순히 인간이 오래 살아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시설의 전문화 및 선진화, 주거 환경의 현대화, 식단의 웰빙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고령화'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2.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고령화 현상은 한국사회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이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경제적 문제는 은퇴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요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자녀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늘어난 생애주기에 반비례하여 짧아진 직업 활동기간 등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은퇴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인인구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7]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는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서적,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8]

둘째, 건강의 문제이다. 신체적인 노화는 비례적으로 많은 질병에 걸리게 한다. 한승진(2010)에 의하면, 노인인구 중 67%가 질병에 걸려

6) 현재 한국사회 내 난임 부부는 약 21만 명이다; SBS 홈페이지, 2017년 7월 17일에 최종수정, 2017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3888&plink=ORI&cooper=DAUM.

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2015년 7월 21일에 최종수정,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https://kordi.go.kr/board.do?code=N107&type_cd=N107_6&mCode=B0784&mode=view&seq=104126&searchDivision=&search=&pg=1&pageSize=10&pwd=null#.

8) 한승진,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3(3) (2010), 291.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9)]

셋째, 사회적 역할의 감소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사회적 영역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관계적 접촉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넘어온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현재 언급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 현상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 약화와 더불어 노인을 존경하는 경로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증가는 타 세대와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만들어 노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노인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희박해지게 되었다.

넷째, 인식의 문제이다. 그동안 노인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이었다. 예를 들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고집이 세다, 나약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노년학'을 중심으로 노인의 이미지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 노인들은 웰빙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살려고 노력하며,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신노인'을 만들었다. 신노인이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노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신노인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생산인구의 감소이다. 사회가 늙어가는 원인 중의 하나는 젊은 세대의 감소에 있다. 인도의 경우 여전히 젊은 국가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노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경우 노년 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9) 위의 논문, 292.

II. 교회의 고령화에 대한 재 이해

1. 고령화에 대한 교회의 이해

사회의 고령화는 교회의 고령화를 야기한다. 교회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교회 노인교육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목회사역 중 노인사역의 중요성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교회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목회에 적용하여 목회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서 노년목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맞춰 전문성을 지닌 노인교육의 모델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사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대학이다. 최근에는 노인 여름 캠프가 실시되는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교회 내 노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노인요양원, 독거노인 방문 및 반찬 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상담 등의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안 마련에 비해 교회의 대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나 사회적 대안을 답습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노년을 생산성의

주기가 아닌 서비스의 주기로 보았기에 교육 커리큘럼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재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교회의 고령화에 맞춘 전문성을 지닌 기독교 노인교육 및 노년목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가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기독교 노인 교육과정 및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노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수동적인 노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노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다시 말해, 고령화가 가속될수록 교회와 사회 안에서 합의되어야 할 이해는 '노인을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Fisher(1995)에 의하면, 노인이 생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첫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은퇴를 한 노인세대가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망의 축소이다. 은퇴는 직장에서의 관계망의 축소를 가져오며, 지인과의 관계망 역시 축소된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은 독거노인의 증가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노년세대에게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경우 스스로 혼자 있기를 원한다기보다는 타의로 혼자되는 경우들이 많다. '강제적인 1인의 삶'은 인간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노인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삶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삶은 흘러간다.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늙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 노화의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과거의 나에 집착하여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늙으면서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정서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1] 그러므로 '늙는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

넷째,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분명 노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관계의 축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의 축소 및 건강 상태의 어려움 등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변화되는 노년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도 아직은 '즐길 수 있는 삶'이라는 사고의 변화를 가

10) 김진한,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2007), 9에서 재인용.

11) 송민령, "나이들면 머리가 굳는다? 아니, 뇌는 변화한다 – 가소성," 2016년 8월 22일에 최종수정, 2016년 8월 25일에 최종접속, http://scienceon.hani.co.kr/425649.

져와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뇌의 가속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기에 노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단지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더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인내심이 필요할 뿐이다.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뿐이다. 노년이 되어도 다른 세대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배우고 이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회의 노년 목회에 대한 이해

여전히 교회는 노인 성도보다는 장년층 성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여 아동 · 청소년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교회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노인 세대에 관심을 두고 노인 세대의 능동적 활동을 이루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러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고령화의 문제 역시 사회가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우고 있는 이때에도 교회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깨우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노년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가 노인성도의 숫자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적으로 전체성도 대비 노인성도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감리회의 경우, 노인성도의 분포도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 노인성도의 분포도가 먼저 제시되는 것이 교회 내 고령화에 대한 인식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교회의 고령화 속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회가 노인교육에 대한 분명한 자기이해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교단에서는 노년목회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각 교회가 이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노년사역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교단은 거의 없었다. 이는 노년에 대한 무관심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감리회 장년부를 중심으로 노년정책위원회를 세우고, 2020년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년정책을 연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노년공과 및 노년수련회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의 경우 노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교재가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필요한 것은 교회가 노인 성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노인교육에 대한 자기이해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활동들은 교회의 이해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자료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성도에 대한 분명한 교회의 자기 이해 및 목회 철학이 제시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통한 노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 내 노인 성도를 위한 전문 사역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회는 세대 별 전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노인 성도를 대상으로 한 전문 사역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비단 노인 성도를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 해도 '노인대학'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사실이다. 교회의 전체 목회의 청사진을 살펴보면, 각 세대별로 접근해야 하는 사역의 방향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노인 성도를 대상으로 – 노인대학을 넘어선 – 노년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인 성도를 수동적으로 보아 서비스 사역을 했다면, 이제는 노인 성도를 능동적으로 보아 생산적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세대가 바로 노인세대이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는 신학교 내 기독교 노인교육 및 세미나가 교육 커리큘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노인 성도에 대한 교육 및 목회는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의 고령화 및 노인 성도에 대한 목회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신학교 내에서 이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고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의 목회자들이 될 신학생들의 목회관을 형성함에 있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 및 이에 따른 교회의 역할과 목회 방향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교회교육 및 교육목회에 있어서 노인교육 및 노인사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전문적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3. 노년목회의 다섯 가지 관심 영역에 대한 이해

교회는 노년 목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영역은 신체적 건강이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지식과 운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노인의 건강이라고 해서 다른 연령대와 크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노화과정에서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연령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12)]

두 번째 영역은 정서적 건강이다. 노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발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이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신체적 변화 및 생활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다. 노년기의 우울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그러므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기수련 학습과 함께 노화로 인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재적응이다. 은퇴 후 노년의 삶은 사회적 활동의 감소와 함께 가족 간의 유대관계의 약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고립감, 상실감, 우울감 등을 겪게 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소외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노인은 심리사회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14)] 사회적 재적응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따른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건강한 상호관계를 위한 자기이해, 자기관리 및 소통에 대한 학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 영역은 자기계발이다. 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노년에 이르러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탐색

12) 민순 외,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제," 「노인복지연구」 18(2002), 5–6.
13) 김정희, "노인의 우울증과 종교 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신학과 현장」 24(2014), 200–202.
14) 정순둘, 박지영, "정보화 교육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2008), 433.

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유용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세는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실현을 통한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Ⅲ. 노년목회에 대한 제언

노년목회에 대해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년의 삶이 가지는 특성에 적합한 신앙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인이라는 세대를 국한하여 교육하는 것은 현재 '노인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다. 노인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노인대학에서 벗어나 노년을 연령별로 나누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년기에 들어선 노인들의 이해는 60대와 70대, 80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연령별로 직면하는 문제와 고민들이 다르고 다양함을 인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대학 외에도 노년 성경학교, 노년 소그룹 활동 등 노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의 자기 이해가 강화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교회 교육적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숫자는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도 매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 가지는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이해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이 가지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세대와 타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제의 장(field)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세대는 타 세대를 이해하고 타 세대는 노인세대를 이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효' 사상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현재, 노인을 공경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교류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교회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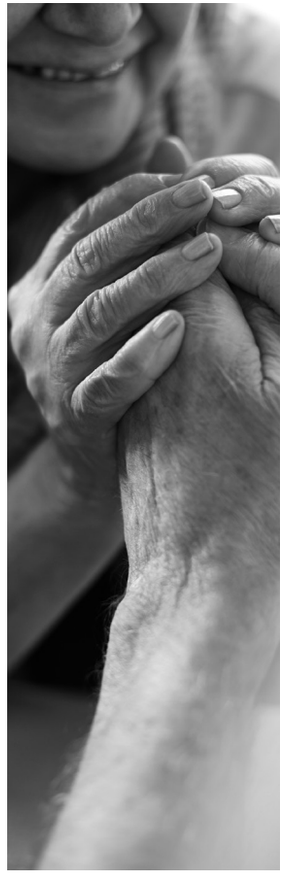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인식과 목회철학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년목회를 특수 목회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목회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노인 성도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도록 하며 그와 동시에 노인 성도들이 교회 활동과 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2014). "노인의 우울증과 종교 활동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신학과 현장」 24, 195–214.
김진한(2007).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1–24.
민순 외(2002).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제." 「노인복지연구」 18, 211–236.
정순둘 · 박지영(2008). "정보화 교육이 노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대회」, 433–435.
한승진(2010).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33(3), 289–313.
다음 백과사전 홈페이지.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100.
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5278.
소비라이프 홈페이지. 2016년 7월 25일에 최종수정.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0.
송민령. "나이 들면 머리가 굳는다? 아니, 뇌는 변화한다. – 가소성."
2016년 8월 22일에 최종수정. 2016년 8월 25일에 최종접속.
http://scienceon.hani.co.kr/42564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2014 노인일자리사업 통계동향."
2015년 7월 21일에 최종수정. 2016년 7월 30일에 최종접속.
https://kordi.go.kr/board.do?code=N107&type_cd=N107_6&mCode=B0784&mode
=view&seq=104126&searchDivision=&search=&pg=1&pageSize=10&pwd=null#.
SBS 홈페이지. 2017년 7월 17일 최종수정. 2017년 7월 30일 최종접속.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683888&plink=ORI&cooper=DAUM.

제1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21세기, 노인목회의 필요성

Ⅰ. 시대적 요청

교회 내 노인성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노인성도의 증가에 대해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노인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노인목회 혹은 노인사역(Senior Ministry)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교회는 교회성장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일 수 있는 노인세대가 교회 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성도를 향한 전도

와 신앙교육, 상담과 돌봄 사역 등에 무관심, 무감각, 무대책, 무책임 등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재, 한국교회는 노인목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노인세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재 이해하여 21세기 노인목회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회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노인도 목회의 대상이다. 목회자가 혹여 청장년에게 역점을 두어 목회를 하는 것은 잘못된 목회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목회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포함되어야 한다.[1)]

둘째, 노인목회는 해체되고 있는 가정의 역할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핵가족의 증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청년실업의 증가 등의 현상은 가족구조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인 노인 부양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2)] 그러므로 노인목회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정의 부양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다.

셋째, 노인목회는 교회의 사회구원을 위한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이다. 노인목회는 노인들에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 · 평생교육적 영역에서 돌봄과 환대, 교제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목회 방향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회구원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종대, "노인목회에서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 「개혁주의 교회성장」 5 (2010), 5.
2) 김정희, "노인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50 (2017), 239–240.

II. 노인 목회의 과제

노인목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으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2. 노인으로 하여금 원만한 사회적응을 하도록 돕고, 타 연령집단과의 연대감을 형성하여 '소속감'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3. 노인에게 역할부여를 하여 교회와 사회 속에서 건강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4. 노인이 확고한 신앙교육을 통해 삶의 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영적 확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III. 노인목회의 의미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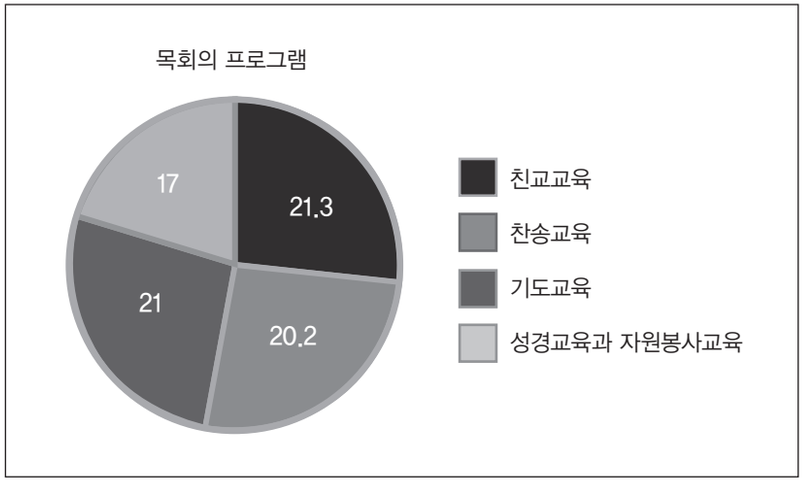
그동안 노인목회는 어떠한 방향 제시 없이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을 위한 구체적인 목회 프로그램의 부재라든지 노인목회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을 제시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오늘날 노인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목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노인목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교제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노인목회 역시 노인으로 하여금 그리

스도인으로서 본분과 의무를 분명히 알고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신앙의 확신 가운데 찾도록 돕는 것과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격려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확신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3)]

노인목회는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의미한다. 여기에 신앙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노인목회는 종교적 색채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앙교육이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회의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노인대학이다.[4)]

좁은 의미에서의 노인목회는 교회 내 노인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의미한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성도에게 있어 성서적인 · 영적인 부분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노인세대는 다른 세대와 다른 삶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 마치 청소년기와도 같다. 갑자기 변화되는 육체적 성장과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청소년기는 은퇴 후 육체적 노화와 함께 사회적 ·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는 노년기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를 육체적 · 심리적으로 맞닥뜨리는 노인 성도에게 적합한 목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노인성도가 원하는 목회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그림 1 참조)[5)]

3) 김정준,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017), 174; 이종대, "노인목회에 있어서 노인교육의 한 방안: 소요리 문답교육," 서울: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3.
4) 김승학,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교육교회」 458 (2016.10), 38.
5) 김승학,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35.



[그림 1. 노인목회의 프로그램]

고령 사회에서 노인목회는 시대적 요청이며 동시에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이 속해 있고, 그들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것이 목회사역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노인세대를 향한 목회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춰 노인 목회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이 시대의 노인목회는 노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기독교적인 방향에서 예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회는 사회적 구원이라는 사명 아래 교회 내 노인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년의 삶을 의미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승학(2016.10). "고령화시대의 노인목회." 「교육교회」 458, 34-40.

김정준(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155-199.

김정희(2017). "노인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50, 233-259.

이종대(2010). "노인목회에서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 「개혁주의 교회성장」 5, 266-306.

제1장

노인목회에 대한 이해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노인목회 실태조사

Ⅰ. 한국사회와 감리교회의 노인인구

2016년에 출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노년정책위원회에서는 21세기에 적절한 노인목회는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무엇보다 한국 감리교회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목회의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교육국 노년정책위원회에서는 노인목회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2016년 6월 1일~2017년 5월 12일까지 약 12개월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노년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설문조사의 기간, 조사지역,

대상, 방법,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지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에 분포된 11개 연회(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에 소속된 186교회를 대상으로 선별적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을 하였다. 둘째, 표집대상은 연구의 편의상 교회 규모(교인수)에 따라 대형교회(300명 이상, 36교회), 중형교회(100~300명, 57교회), 소형교회(100명 이하, 93교회)로 구분하여 계급구간을 정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행정지역과 연관된 각 연회 단위 별로 대형, 중형, 소형교회 규모의 비율을 각각 30% 정도 해당되도록 선정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대하여 대형교회 19.35%, 중형교회 30.64%, 소형교회 50%가 응답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질문내용 첫 번째는 전체 교인 수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것이다. 넷째, 설문조사의 질문내용 두 번째는 교회별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설문조사 내용 네 가지에 기초하여 2016년 기준으로 한국 감리교회의 노인목회 실태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 조사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12일
- 조사지역 : 전국 11개 연회(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연회)
- 설문조사 응답 교회 수
  : 186교회(2.93%, 전체 교회 수 : 6,344교회, 100% 기준)
- 설문조사 교회 계급구간(규모) : 총 186교회(100% 기준)
  - 대형교회 : 300명 이상(36교회, 19.35%)
  - 중형교회 : 100~300명(57교회, 30.64%)
  - 소형교회 : 100명 이하(93교회, 50%)

II. 2016년 한국 감리교회의 노인인구 구성분포

2016년 현재 한국 감리교회(미주자치연회 제외)는 전체 11개 연회, 216개 지방회, 6,344개 교회, 교역자수는 10,883명이며, 교인수는 1,375,319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전국 감리교회 11개 연회에 분포된 표집대상 186개 교회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감리교회의 대략적인 노인 인구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합계
지방수	13	18	31	28	21	24	14	23	21	15	8	216
교회수	339	447	1,083	799	605	677	410	583	645	428	268	6,344
교인수	246,194	201,378	290,158	131,675	89,196	108,021	40,196	111,481	93,727	42,616	20,677	1,375,319
조사대상 교회수	20	18	23	20	15	31	12	15	9	10	13	186
노인수 전체교인수	1,928 8,426	1,681 6,579	928 3,124	1,072 7,554	1,293 5,303	1,751 4,747	386 1,348	3,927 14,468	1,235 3,634	413 1,482	512 1,969	15,126 57,934
노인 구성비(%)	22.88	25.55	29.70	14.19	24.38	36.88	28.78	27.14	33.98	27.86	40.34	평균 26.10

2016년 표집대상 교회: 186교회, 교인수: 57,934명, 65세 이상 노인수: 15,126명, 평균 노인구성비: 26.10%

[표 1. 2016년 한국 감리교회 표집대상 노인인구 구성 비율]

1. 서울연회

서울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399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20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4.02%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0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7개 교회, 중형교회는 7개 교회, 소형교회는 6개 교회이다. 20개 교회의 교인 수는 8,426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928명으로 22.88%에 해당된다.

2. 서울남연회

서울남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447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8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4.02%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8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8개 교회, 중형교회는 4개 교회, 소형교회는 6개 교회이다. 18개 교회의 교인 수는 6,579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681명으로 25.55%에 해당된다.

3. 중부연회

중부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1,083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23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12%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3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2개 교회, 중형교회는 5개 교회, 소형교회는 16개 교회이다. 23개 교회의 교인 수는 3,124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928명으로 29.70%에 해당된다.

4. 경기연회

경기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799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20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12%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20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3개 교회, 중형교회는 9개 교회, 소형교회는 8개 교회이다. 20개 교회의 교인 수는 7,554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072명으로 14.19%에 해당된다.

5. 중앙연회

중앙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605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5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47%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4개 교회, 중형교회는 6개 교회, 소형교회는 5개 교회이다. 15개 교회의 교인 수는 5,303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293명으로 24.38%에 해당된다.

6. 동부연회

동부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677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31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47%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1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2개 교회, 중형교회는 9개 교회, 소형교회는 20개 교회이다. 31개 교회의 교인 수는 4,747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751명으로 36.88%에 해당된다.

7. 충북연회

충북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410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2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92%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2개 교회, 중형교회는 1개 교회, 소형교회는 9개 교회이다. 12개 교회의 교인 수는 1,348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386명으로 28.78%에 해당된다.

8. 남부연회

남부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583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5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57%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5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3개 교회, 중형교회는 5개 교회, 소형교회는 7개 교회이다. 15개 교회의 교인 수는 14,468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3,927명으로 27.14%에 해당된다.

9. 충청연회

충청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645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9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1.39%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9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1개 교회, 중형교회는 5개 교회, 소형교회는 3개 교회이다. 9개 교회의 교인 수는 3,634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1,235명으로 33.98%에 해당된다.

10. 삼남연회

삼남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428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0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2.33%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3개 교회, 중형교회는 2개 교회, 소형교회는 5개 교회이다. 10개 교회의 교인 수는 1,482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413명으로 27.86%에 해당된다.

11. 호남선교연회

호남선교연회의 전체 교회 수는 268개 교회이며,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회는 13개 교회로 전체 교회 수 대비 4.85%에 해당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3개 교회 가운데 대형교회는 1개 교회, 중형교회는 4개 교회, 소형교회는 8개 교회이다. 13개 교회의 교인 수는 1,969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512명으로 40.34%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2016년 한국 감리교회 노인목회실태조사를 위한 표집대상 186개 교회의 전체 교인 수는 57,934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인구수는 15,126명으로 전체 교인 수 대비 평균 26.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한국 감리교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2016년 이전에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노인 교인수의 동향과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2016년 현재 본 연구의 상황에서, 전국 감리교회의 노인인구 평균 구성비 26.10%를 기준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연회의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호남(40.34%), 2위 동부(36.88%), 3위 충청(33.98%), 4위 중부(29.70%), 5위 충북(28.78%), 6위 삼남(27.86%), 7위 남부(27.14%) 등이다. 여기서 1~7위를 차지한 7개 연회는 지역적으로 대개 서울과 경기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한국사회 노인인구의 변화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인구 평균 구성비 이하의 순위는 8위 서울남(25.55%), 9위 중앙(24.38%), 10위 서울(22.88%), 11위 경기(14.19%) 등이다. 그러나 8~10위까지라도 노인인구의 구성 비율은 대개 2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경기연회(14.19%)만 10%대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국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은 6,569천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3.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비교하여 2016년 한국 감리교회의 교인의 구성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

균 26.10%라는 것은, 전체 교인수가 100명이라면 65세 이상 노인이 26명으로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n aging society)라고 하는데 모든 선진국이 여기에 해당되며, 15%선에 있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며, 20%를 상회하는 국가나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2016년 한국 감리교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교인수)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에서 부르는 이른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의 수준이라 하겠다.

Ⅲ. 노인목회 프로그램 운영 실태

2016년 현재 한국 감리교회(미주자치연회 제외)는 전체 11개 연회, 216개 지방회, 6,344개 교회, 교역자수는 10,883명이며, 교인 수는 1,375,319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전국 감리교회 11개 연회에 분포된 표집대상 186개 교회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의 내용에 기초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감리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목회프로그램 실태를 순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순위	프로그램	빈도 (시행 교회수)	프로그램 유형
1	효도관광(나들이)	48	교회
2	식사대접(삼계탕데이)	30	교회
3	실버대학(노인대학)	27	교회
4	반찬나누기	22	지역사회활동
5	노년성경학교	20	교회
6	선물전달(어버이날)	15	교회
7	실버성가대	13	교회
8	동아리활동	12	교회
9	생활비지원	11	지역사회활동
10	웰다잉교육	6	교회
11	장기요양보호시설	6	사회복지기관
12	노인속회	4	교회
13	지역주민 초청행사	4	지역사회활동
14	노인정 쌀 지원(생필품 간식)	4	지역사회활동
15	경로잔치	3	지역사회활동
16	마을잔치 지원	2	지역사회활동
17	어버이날 행사	2	교회
18	성경공부	1	교회
19	무료급식	1	지역사회활동
20	영화상영	1	교회
21	목욕봉사	1	사회복지기관
22	미술봉사	1	지역사회활동
23	경로식당	1	지역사회활동
24	노년부 선교회 모임	1	교회
25	어르신교회	1	교회
26	한글학교	1	지역사회활동
27	요양원	1	사회복지기관
28	호스피스병동	1	사회복지기관
29	주간식사대접	1	지역사회활동
30	이 · 미용 봉사	1	사회복지기관
31	야외식사모임	1	교회
32	교회 쉼터 개방	1	지역사회활동
33	장기요양시설 방문(과일전달)	1	교회
34	생필품지원	1	지역사회활동
35	지역주민 여행경비 지원	1	지역사회활동
36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여행	1	지역사회활동
37	지역 경로당 찬조금	1	지역사회활동
38	문화센터	1	사회복지기관
39	김장 나눔사업	1	지역사회활동
40	지역주민 초청 발마사지	1	지역사회활동
41	지역주민 식사대접	1	지역사회활동
42	지역 봉사활동	1	지역사회활동
43	노인 목회프로그램 없음	70	

[표 2. 2016년 한국 감리교회 노인목회 프로그램 실태]

위의 표를 2016년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교회 186개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회프로그램, 둘째는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나 참여, 셋째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며, 넷째는 노인과 관련된 목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목회프로그램이다. 교회 안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목회프로그램은 효도관광(48), 식사대접(30), 실버대학 혹은 노인대학(27), 반찬나누기(22), 노년성경학교(20), 어버이날 선물전달(15), 실버성가대(13), 동아리(하모니카, 색소폰, 독서, 사진 등) 활동(12), 생활비지원(11), 웰 다잉(죽음준비학교)교육(6) 등이다.[1] 교회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들은 주로 3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목회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인적, 경제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안에 시행되고 있는 노인목회 프로그램들을 소규모 교회에서 시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축소하여 진행한다면 가능한 것들도 있다. 예컨대, 효도관광, 식사대접, 반찬나누기, 어버이날 선물전달, 생활비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 안의 노인들과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의 제공, 혹은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그 내용은 지역주민 초청행사(4), 노인정 쌀 및 생필품, 간식 지원(4), 경로잔치(3), 마을잔치 지원(2), 무료급식(1), 경로식당(1), 주간

1) ( )의 숫자는 교회 수이다.

식사대접(1), 이미용 봉사(1), 교회 쉼터 개방(1), 지역노인 생필품 지원(1), 지역주민 여행경비 지원(1),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여행(1), 지역 경로당 찬조금 지원(1), 문화센터(1), 김장 나눔 사업(1), 지역주민 초청 발마사지(1), 지역주민 식사대접(1), 지역 봉사활동(1) 등이다. 교회 안의 노인들과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목회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혹은 관내 노인복지 사업에 인적, 경제적, 물질적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교회가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21세기 신자유주의시대 한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인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으로서 교회가 활동하는 유형이다. 한국 감리교회는 1884년 조선 고종 때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들의 초기 사역부터 교육, 의료, 사회복지사업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전통은 21세기 오늘날에도 감리교회의 사회선교, 사회복지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노인에 대한 목회적 관심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교회 186교회 가운데 교회 내의 기관이나 부서로서 실버대학(노인대학), 노인교육, 문화센터 등의 운영, 혹은 더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보호시설)로서 목회사역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노인 목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 186개 교회들 가운데 노인 목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는 70개 교회로 37.63%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의 교회들은 대개 10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규모의 교회들은 대개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 상태의 교회로서 노인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인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체적인 목회프로그

램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은 물론 한국사회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노령사회'라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면, 노인문제에 대한 선교적, 목회적, 복지적,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2 장

노인목회의 네 가지 요소

– 행복한 노인을 위한 예배,
행복한 노인을 위한 교육,
행복한 노인을 위한 봉사 및 선교

제2장

노인목회의 네 가지 요소

행복한 노인을 위한 예배, 행복한 노인을 위한 교육, 행복한 노인을 위한 봉사 및 선교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나 교회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 더욱이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는 만70세가 넘으면 은퇴를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권사, 집사도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은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노인을 위한 목회적 배려를 준비하지 않으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젊은이도, 노인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 젊은이들을 위한 목회적 배려 못지않게 노인을 위한 목회적 준비와 배려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Ⅰ. 행복한 노인을 위한 케리그마

사회가 노령화 되어감에 따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중 노인의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사회는 노령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배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교회의 예배는 고정화되어 있거나 오히려 노인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령사회에 있어서 교회를 찾는 노인들을 위한 예배 그리고 교회가 초청해야할 노인들을 위한 예배의 범주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1. 참여를 염두에 둔 케리그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노인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한다. 우선 모든 교회가 손쉽게 노인을 위한 예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배 안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흔히 비교적 젊은이들이 안내를 서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잘 준비시켜 안내에 참여시키는 것은 또 다른 교회공동체의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노인은 젊은이들 못지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함과 여유, 여기에 신앙적 성숙함은 젊은이들

보다 뛰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을 준비시켜 안내에 참여하게 한다면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모든 세대를 수용함을 보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점점 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비중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을 이해하고 노인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노인을 훈련시켜 안내하게 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교회가 여유가 된다면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안내를 하게 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신구세대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공동체 전체에게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지만 교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연륜이 있고, 수행이 가능한 노인에게 예배의 사회를 보게 하는 일도 필요하다. 예배의 사회를 평신도에게 맡기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비능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1년 52주 모두를 맡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매월 한 차례라도 노인이 사회를 보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부 차원에서 예배의 사회자를 위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감리교회의 특징상 예전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의 전통은 평신도에게 예배를 위임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노인에게 사회를 보게 하여 노인에게 적극적인 예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

현대 한국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주일 낮 예배 중 기도를 평신도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에 따라 장로가 70이 넘어 은퇴를 하게 되면 주일 기도의 순서조차 맡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예배 중 기도 순서를 노인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의 경우 대부분이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이들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하여 더 잘 알고, 교회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였던 이들이기에, 그들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다. 본부 차원에서 공예배 기도자를 위한 매뉴얼 또는 모범기도문을 만들어 보급한다면, 예배 중 기도를 노인에게 맡김으로 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예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좀 더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예배에 있어 찬양은 매우 중요한 순서이다. 그러므로 예배 중 찬양을 선곡함에 있어서도 노인을 배려한 선곡이 필요하다. 너무 빠른 곡이나 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을 선곡할 경우 노인은 예배 중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고 방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체교회의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각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되 노인을 염두에 두고 선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노인을 위한 배려이며, 노인을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찬양대 구성에 있어서도 노인을 배제하거나 찬양대에서 노년층이 빠져 주기를 바라는 경향도 있다. 물론 노인이 되면 발성의 변화 등이 생기고 이것이 찬양대의 화음을 만드는 일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선곡의 배려가 중요하다. 담임목사 뿐 아니라 찬양대의 지휘자 등 예배를 위한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이 노인을 위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선곡을 하는 작은 배려가 노인들로 하여금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상황에 따라 노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별도로 구성하는 일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미 노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며, 노인으로 구성된 찬양대에 참여하는 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이 되었다고 찬양대에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일은 고령화사

회에 어울리지 않은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배 중 짧은 간증의 시간을 갖는 것은 예배에 또 다른 활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나라의 경우 예배 중 짧은 간증의 시간을 갖는 교회가 많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 교회가 예배 중 간증의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예배를 1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매우 극적인 간증만을 접해 온 한국교회의 특징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있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잘 훈련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신도들이 예배 중에 회중 앞에서 나누게 하되,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노인들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케 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이미 거의 모든 교회 재무의 절반 정도가 노인들에 의하여 감당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기만 하지 그 헌신을 봉헌하는 과정에도, 헌금을 관리하는 일에서도 모두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 시간과 건강이 허락되는 노인을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회적 배려가 되어야 한다. 헌금 계수가 가능한 노인을 재무부원으로 봉사하게 하고, 재무집행에 있어서도 능력이 되는 노인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은퇴를 하였으니 당신들은 헌금만 하시오. 관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는 노인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으로 하여금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교회의 재무 상태도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상황이 허락하는 한 헌금위원, 재무부원 등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노인의 예배 참여를 돕는 일이 될 것이다.

2. 배려를 염두에 둔 케리그마

노인이 편안히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시설도 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노인의 보행이 불편하거나 활동에 제한을 받게 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매우 일부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직 노인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물론 시설의 개선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기에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는 쉽게 개선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만 노인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모든 교회에 공통되는 현상으로서 교회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도 계단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최근에 지어진 교회 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회의 이동 공간이 계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에게 있어 계단은 이동에 큰 장애가 된다. 신축 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계단 외에 이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교회 건물은 모든 이동공간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계단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의자에 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초기 교회는 오히려 그 긴 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교회는 이미 예배실에 의자를 배치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교회의 의자가 과연 노인들이 앉아 예배드리기에 불편하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한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좁은 예배 공간으로 인해, 최대한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의자의 간격을 좁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노인에게 이와 같이 좁은 의자 간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 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은 예배실 안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여서 의자에 앉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노인들을 위한 의자의 간격 그리고 의자의 형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전체적인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배실 내부의 의자 중 일부만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접근하고 착석할 수 있는 의자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예배에 참여하였다가 응급한 상황을 당하는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에 참여했던 노인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교회가 예배에 참여했던 노인에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저히 준비하면 응급상황 중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아주 쉽게 혈압측정기, 체온측정기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요즘은 전자식 측정기들이 많이 있고 사용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모두가 쉽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을 도울 수 있는 휠체어, 간이침대를 구비하는 것이고, 아직은 매우 고가이기는 하지만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공동체 안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들을 훈련시킬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는 119구조대의 출동이 매우 빠른 편임으로 119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준비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에 응급대처를 위한 교회 내부의 조직과 역할분담,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3. 섬김을 염두에 둔 케리그마

노인의 경우 일정한 상황에 이르면 보행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건강한 상황에 있는 이들과 와상 중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 있는 이들에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에게 요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시기 중 와상의 상태로 보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교회는 그 긴 와상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정기적인 그리고 다양한 '찾아가는 예배'의 형태를 준비해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초대교회는 주일예배 후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성찬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급속히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예배'는 매우 중요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에 본부 차원의 '찾아가는 예배'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찾아가는 예배'를 목회자가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훈련된 평신도들이 주기적으로 와상 중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와상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일이고, 찾아가는 이들에게도 귀한 헌신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사회가 되면 와상 중에 있지 않더라도 밖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예배'의 준비는 매우 필요하다. 이에 교회는 '찾아가는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교회의 성도 중 시설에 입소한 성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성도가 입소한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일도 중요하다. 시설장에게 '찾아가는 예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여 '찾아가는 예배'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 예로 성경이 전해주는 좋은 전통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하나는 '도유식'이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환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을 성령의 기름으로만 이해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랫동안 실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왔다. '찾아가는 예배'에서 '도유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감리교회의 공통적인 도유식 매뉴얼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와상 중에 있거나 밖으로의 출입이 불편하여 교회를 찾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 예배하며 성경의 전통에 따라 그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준다면 그들은 그 예식을 통해 더 큰 위로와 희망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찾아가는 예배'를 위한 '응급세례'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회공동체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만 응급세례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찾아가는 예배'가 활성화되고 알려지면 와상 중에 있는 이들 혹은 밖으로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 중에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배' 중 세례예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미 응급세례 예문이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례예문을 만들고 교회공동체가 '찾아가는 예배' 중 세례예식도 함께 행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예배'가 지닌 상담적 기능이다. 와상 중에 있거나 밖으로의 출입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내적 문제들이 있겠는가? 그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하는 중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내적문제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령사회에 있어 노인을 위한 예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공동체가 좀 더 심도있게 노인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야만 한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노인공동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그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이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노인목회를 위한 케리그마! 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교회의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II. 행복한 노인을 위한 디다케

한국교회는 그동안 노인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노인대학을 시작하며 예배형식으로 교육을 행하기도 하였고, 성경연구반을 개설하여 노인들을 위한 성경반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노인을 위한 절기학교를 개설하여 노인여름성경학교, 노인겨울성경학교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단적으로 이에 따른 공과를 집필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성은 좀 더 구체화 되어야만 한다. 노인의 욕구(need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미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노인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나누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 경험하고 소유한 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나눌 수 있도록 노인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1.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은 그 변화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따라가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교회의 교육 방향은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를 염두에 두고 행해야만 한다. 노인을 위한 신앙교육의 방향은 노년의 삶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틀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준비하고 시행하는 평생교육의 틀을 선도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의 방향을 교회는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성경은 이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처 했던 이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꿈을 소유하고 그 꿈을 찾아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2~3)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의 방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양한 도전과 위험이 아브라함의 앞을 가로막았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갔다. 노인에게도 수없이 많은 도전이 찾아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와 문화 충돌이 노인을 힘들게 하며 고립되게 한다. 이러한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가 노인을 위한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의 신앙교육이라 하여 단순히 성경지식만을 전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디다케가 필요하다.

2. 나눔으로서의 디다케

노인이 그 누구라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모세는 80세가 넘은 고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는 일을 감당하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지 가까이 가서 보려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

에서 신을 벗으라." 이어서 말씀 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 1~10)

모세가 80세가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은 그의 다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 받은 모세이기에 바로 왕을 찾아가 그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단판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 광야에서의 경험이 모세에게 있었기에 애굽을 탈출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갈 수 있었던 최고의 적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인은 모세와 같이 이미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이들이다. 그러므로 그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교육의 장을 교회는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노인이 이미 소유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음 세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교육을 먼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연결해야 한다. 단순한 재능 나눔, 재능 기부의 차원이 아니라 노인들이 젊었던 시절,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소유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과정임을 알게 하는 교육과 함께, 이제는 능숙한 경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 그 장을 교회가 열어가는 나눔으로서의 디다케를 준비해야 한다.

3. 증거로서의 디다케

미래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 중 하나는 노년기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법령과 조직의 규정에 따라 은퇴를 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한 노인이지만 상당한 경우 여전히 건강하고 폐기가 넘친다. 교회 내에서도 70세 은퇴를 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이 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교육 즉, 증거로서의 디다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갈렙이 고령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는 것을 여호수아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여호수아를 찾아 온 갈렙은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

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 6~12)

갈렙은 85세에 이미 그가 젊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아가겠다고, 그리하여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젊은이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고백하였다. 증거로서의 디다케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 노인이라 하여 모든 일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인이지만 당당한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Ⅲ. 행복한 노인을 위한 코이노니아

미래사회 노인 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고독사는 바로 외로운 노인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다. 교회는 초기교회시절부터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여겨 왔다. 노인목회에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매우 중요한 목회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

1. 돌봄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인간 모두는 그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노인은 더더욱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속회를 돌봄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속회가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의 가정에 모여 서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던 초대교회와 같은 속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때 돌봄으로서의 코이노니아는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요한 웨슬리의 처음 속회와 같이 각 교회의 사정을 반영한 속회 규칙을 만들고 속장을 훈련시키며 속도원들을 돌보게 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연락, 정기적인 만남 등 과거 속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목회의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지역을 염두에 둔 속회 편성을 하고, 속장이 속도원들을 위해 매일 또는 자주 연락을 하게 하며, 속도원 간에도 서로를 돌보게 할 때 점점 더 심각해지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목회의 도구가 될 것이다.

2. 영적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단순한 육체적 만족만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하되 떡을 떼는 교제 외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영적교제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다. 속회가 바로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실 요한 웨슬리의 처음 속회가 지닌 요소 중 중요한 부분도 바로 영적교제였다. 노인도 영적교제를 필요로 한다. 영적교제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노인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는 꽃 피울 수 있다.

3. 양육으로서의 코이노니아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성장함에 있어서 노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5~16)

우리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성장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노인의 신앙적 성숙과 발전, 양육을 위한 장으로서의 속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속회를 양육으로서의 코이노니아의 장으로 발전시킬 때 노인목회의 폭을 좀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행복한 노인을 위한 디아코니아

노인도 그리스도께 부름 받았기에 주어진 사명이 있다. 단순히 예배에만 참여하는 소극적 신앙인으로서의 노인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을 교회공동체는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1) 나눔으로서의 디아코니아

노인 중에는 전문성을 소유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소유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나눔으로서의 디아코니아의 장을 교회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와 구제의 현장에서 노인이 소유한 전문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의 다양한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하고 통합하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 선교현장도 이제는 좀 더 세밀하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기술을 전수하고 나눔을 통한 선교도 가능하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조리교육, 육아교육 등에 노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큰 선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전문성을 소유한 노인들로 구성된 단기선교팀이 해외에서 중장기 기간을 머물며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선한 디아코니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섬김으로서의 디아코니아

고령사회에 있어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노인이 노인의 필요와 갈증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을 섬기게 하는 노노케어의 장을 교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노인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에 교회는 지역 노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구를 해결하는 방안 중 노인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섬김의 디아코니아에 주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3)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자체는 함께 함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 그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가는 틀에서의 디아코니아가 필요하다. 교회공동체 안의 모든 노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건강한 노인, 무엇인가를 소유한 노인들만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일부만을 위한 디아코니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디아코니아가 되어야 한다. 노인은 건강, 경제적 여건, 환경 등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공동체로서 노인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는 교회공동체에 속한 모든 노인들이 함께하는 디아코니아를 시행해야만 한다. 교회가 함께하는 디아코니아를 선도할 때 노인들의 자존감은 좀 더 높아지고 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며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노인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목회 방법론

- 한국사회 내 노인의 여가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 (여가복지와 노인목회)
- 한국사회 내 노인시설 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가능성 (사회복지와 노인목회)
- 한국사회 내 삶의 질 향상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 (시니어클럽과 노인목회)

제 3 장

노인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목회 방법론

한국사회 내 노인의 여가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
- 여가복지와 노인목회

Ⅰ. 시대적 요청

한국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통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인생주기에 있어서 은퇴 이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아지게 한다. 고령사회의 문제는 비단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 핵가족화 및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 · 단절되고 있는 것에 있다. 과거와 달리 노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은 빈곤, 고독, 치매, 학대,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이 지닌 욕구들을 충족시켜 행복한 노후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들, 즉 소득, 의료, 주거, 여가, 일자리, 교육, 요양,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1)]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은퇴 후 발생하는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가시간 활용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 정서적 · 사회적 건강을 증진하게 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게 한다. 왜냐하면 여가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통해 자기 가치와 자기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가활동을 통해 노인은 소외감, 무력감, 무료함으로 오는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노후의 고독감 및 고립감 해소,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2)]

Ⅱ.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교회 내 고령 구성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교회의 고령화는 교회로 하여금 노인 구성원에 대한 재 이해를 촉구한다. 교회는 고령 성도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3)] 그동안 교회가 유치부, 유 ·

1) 이향숙,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5. 1.
2) 위의 논문

초등부, 중 · 고등부, 청 · 장년부 등은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지만 노인의 영적 양육과 교육을 위한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노년층에 대한 교회의 배려와 이해가 빈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가속화 현상은 비단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더 나아가 교회적 차원에서도 문제인식을 해야 한다.[4] 때문에 목회자 스스로가 사회와 교회의 고령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관심의 표현은 은퇴 후 증가된 여가 시간의 활용문제에 대한 교회적 차원에서의 방안으로 나타나야 한다.[5]

흔히 노년기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퇴 후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역할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와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 노인들에게 은퇴 후의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돕고, 노후생활을 생산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움을 줘야한다. 노인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기고, 자신들의 상황(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 영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field)이 제시되어야 한다. 노년기의 활동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함께 다른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교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할들은 노년기의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장해 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노인에게 있어 활동참여와 대인관계란 단순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3) 김정희,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독교평생교육적 입장에서의 논의 및 제언," 「복음과 교육」 (2012), 177–178.
4) 위의 논문, 178.
5) 위의 논문, 178–179.

Ⅲ. 노인복지관의 개념과 중점 사업현황

현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 1호에 의하면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심상오, 2006). 이러한 점을 볼 때,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여가생활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노인복지관은 지역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자가 되어주며, 노후생활에서 경험하는 제반 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의 자조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

는 노인복지관 사업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기초적인 보건복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시혜적 복지, 돌봄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개념이 주도적인 상황이다. 노인의 권익옹호, 대변자 그리고 노인 스스로 문제와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하는 필요성에는 다소 상반된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한계점이라고 보여 진다.

Ⅳ. 노인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의 변화

1. 새로운 노년의 등장

새로운 노년이란 길어진 평균수명과 향상된 건강, 높은 교육수준과 소비수준 등 현재의 노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세대를 말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노년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노인을 신노년 세대라 부른다(김수영 외, 2009), 대표적 신노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안정, 높은 소비욕구와 강한 자의식, 적극적인 정치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새로운 노년세대는 이전 세대의 노인보다 더 활동적이며, 오래 일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세대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무력한 노인의 이미지와는 다른 행동양식과 생활방식을 보여줄 것이며, 노인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자 지배적인 노인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노인을 후배시민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배시민'으로 부르고자 한다.

2. 선배시민이란?

선배시민(senior citizen)이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을 현실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졌음을 강조해 '선배'라는 호칭을 붙여 노인 어르신을 '선배시민'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현대사회의 시민이란 시민의 개념에서 밝혔듯이 자발성과 보편성,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생애주기를 사회적 측면을 분기점으로 나누어 본다면, 노년기 이전 세대를 사회적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후배시민으로, 노년기 이후 세대를 사회적 활동에서 은퇴한 선배시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선배시민은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학습하며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 중 노인을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은 그동안 상당부분 사회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 또는 잉여인간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새로운 노인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건강하면서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자립도를 가지고 있다. 노인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보호와 존경, 우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들은 선배시민의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 후배시민들의 본보기, 사회를 돌보는 사람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체세력이다. 따라서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선배시민의 특성

1) 활동적인 선배시민

현대의 선배시민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조기퇴직 등으로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후에도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활동 이론(activity theory)에 의하면 노년기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비슷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중년기와 비슷한 활동이 유지될 것이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 상실된 역할과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및 활동을 찾게 된다고 본다.

세계 보건기구는 2002년 '활기찬 노화'라는 개념적 틀을 발표하였는데, 활기찬 노화란 노인들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고 생애주기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우리사회의 선배시민들은 노년기에도 노동, 교육,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의 선배시민들은 현재의 선배시민들보다 노년기 삶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창조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할 것으로 본다.

2) 참여하는 선배시민

선배시민의 사회참여는 노년기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인간관계도 좁아지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은 성공적 노화개념의 주요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성공적인 노화를 강조한 Rowe와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질병과 장애의 예방, 높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유지,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중돈(2012)도 성공적 노화는 건강한 노화, 적응적 노화, 생산적 노화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사회관계망을 유지하고, 노후소득을 준비하며, 사회활동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대의 선배시민은 건강, 교육수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독립된 생활을 희망하고 있고,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욕구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배시민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등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립, 노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헌하는 선배시민

노인들에게는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Mc Clusky, 1974). 그러한 헌신과 봉사, 기부를 통해 자아개념을 충족시키고 스스로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인은 대체로 자원봉사의 주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를 받는 대상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봉사를 받는 수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봉사를 베푸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년기의 사회공헌활동은 개인적으로 퇴직에 의해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주고, 소외감을 극복하며, 사회에 유용한 존재라는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자기상 유지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봉사하여 사회복지에 공헌할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선배시민의 자원봉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 및 건강수준이 높으

며, 사회의 유익한 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선배시민들의 욕구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학습하는 선배시민 : 교육하고 교육받는 선배시민

노인들은 후배시민들에게 그간 사회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 경험, 지혜 등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노인 자신의 인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기도 한다. 노인은 사회에서의 은퇴, 육체적 노화 등으로 생산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은 노인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 영향력과 자율성을 조장해 줄 수 있다. 교육은 지적인 삶의 계속을 의미하고, 학습동기와 창의력을 부여하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한다.(이경희, 2002)

노년기의 교육은 신체적, 생리적, 성격적, 지적, 생활습성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동참할수 있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건강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세대간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한다. 교육은 노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돕고(Glendinning,1997), 더욱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Ardelt,2000).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Harris Interactive Inc, 2000) 또한 그들의 정치적 ·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사회 안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Weaver, 1999). 또한 노인들에게 학습은 인지적 능력의 쇠퇴를 보호하는 부수적인 기능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선배시민들의 지식과 기술, 경험을 존중하여 계속 유지 ·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변화하는 선배시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선배시민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Ⅴ. 한국교회의 선배시민관점으로의 역할

교회는 노인을 돌봄의 대상로만 여기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삶을 걸어온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선배시민"의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교회가 지역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노인복지관, 실버문화센터 등의 한정된 공간자원과 인적, 물적 자원으로 지역 노인의 인식개선, 관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을 모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교회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지역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의 공간은 일주일에 불과 1~2일 정도 목회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목회에 집중되는 기간 이외의 시간을 지역을 위하여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공간을 하나님의 복음전파를 위한 공간으로만 활용하기보다 이웃사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노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교회 노인여가복지와 평생교육 사례 : 안산 명성교회]

- 샬롬효도원이라는 교회 자체적인 자원으로 직접 운영되는 형태의 노인대학(놀이대학)
- 교회가 속한 지역의 만70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을 초청하여 한글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야외활동 등의 여가활동 및 평생 교육 진행
- 지역으로의 확대 :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out-reach 사업, 찾아가는 샬롬어르신대학으로 확장하여,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미자립교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문노인대학으로 운영

2. 교회의 노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탑재

교회는 많은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안에서 교회가 노인의 관점을 '노인'에서 '선배시민'으로 변화시키는 교육기관으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의 선배시민 교육을 통해 후배노인과 선배노인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나감으로 지역공동체가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2012).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독교평생교육적 입장에서의 논의 및 제언." 「복음과 교육」, 159-188.
이향숙(2015).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여가활동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제 3 장

노인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목회 방법론

한국사회 내 노인시설 복지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가능성
- 사회복지와 노인목회

Ⅰ. 시대적 요청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다.[1] 이를 근거로 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의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인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기독교의 정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시작하게 된 요인도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도움 · 상호 부조 · 상부상조의 정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이해와 구제는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이해와 도움의 손길은 기독교에 있어 근본적인 동기이며 동시에 사회복지제도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2] 그런데 이는 단지 구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구제는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회 안으로 불러들여 사회통합까지 추구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이념과 가치에 따른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이 건강한 소통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소하여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귀속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통합이다. 왜냐하면 사회통합이란 사회 내 기능적 상호관계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공생하기 위해 연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 이에 교회는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

1) 정무성, 2003; 이재모,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복지행정논총 제15권 제2호 (2005)에서 재인용.

2) 이재모 68.

3) 다음 홈페이지, 2017년 11월 6일에 최종접속,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v050mc611a6.

한 자에게 물질적 · 정신적 · 영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귀중히 여기는 관계를 통해 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II. 교회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한국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노인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공공부조 혹은 사회기관을 통한 서비스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은 빠른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증가하는 연령과 비례하여 복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자원 부족으로 인한 복지 공급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제의 복지 공급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정 스스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그로 인해 노인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부와 지자체 및 가정의 역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역사회 내 교회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치 · 경제 ·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양한 인적 · 물적 · 시설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닌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35~40)

이제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문제는 비단 개인이나 가정 · 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4] 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이다. 이 가운데 디아코니아는 '섬김과 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봉사 혹은 사회적 구제를 의미한다.[5] 이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사회통합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행하는 모든 사회봉사 및 사회구제는 단순하게 전도나 선교를 위한 수단적 도구로

4) 이정관(2014), 한성흠(2012); 민장배, 송진영, "고령사회에 따른 교회의 노인복지 선교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49호(2016)에서 재인용.

5) 김정희, "독거노인의 고독사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논단」 85 (2017), 51.

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6)]

그동안 교회가 성장과 전도에 중점을 두었던 목회방향을 전환하여 지역 사회 내 증가하는 노인들에 중점을 두고 그들에게 물질적 · 정서적 · 영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7)] 여기에서 노인복지서비스(Kahn, 1979)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경감하거나 해결하는 등의 대인적 사회서비스를 말한다.[8)] 구체적으로는 노화와 은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 심리적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 삶의 보람을 위한 여가지원서비스, 당면문제의 경감 또는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9)]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동안 교회가 지역사회를 단지 선교와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겨 발생한 지역사회 내 이질감 · 거리감 · 배타성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역사회 내 구성원들과의 자발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동감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실천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전도와 선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10)]

6) 황홍렬(2001); 민장배, 송진영에서 재인용: 김정희, 51.
7) 위의 논문, 603: 복지서비스란 사회 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인간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 및 활성화 시키거나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이재모, 69.
9) 위의 논문.
10) 민장배, 송진영, 611–612.

Ⅲ. 교회 내 사회복지 시설 설치 : 장기요양기관 설치 방법

1. 일반형 기준

유형	주야간	요양시설
정원	21명	29명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사업자	개인 또는 단체	개인 또는 단체

■ 설치 절차 및 방법

- 소재지 및 건축물 : 이용자 모집을 고려한 소재지 및 위치선정,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확인(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표1), 소방 설비(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적확인, 화장실은 면적 내에 있는지, 층 단독사용, 발코니 옥상 사용 등

- 직원채용 : 직원채용, 근로계약체결(시설장과 계약),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 보험가입, 영업배상보험가입, 자동차보험가입, 이용자모집을 고려해서 정원 및 직원은 탄력적으로 채용함(점진적으로 확대 고려)

- 설치신고서 제출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시설명칭 결정, 직인 만들기, 사업계획서 수립, 운영규정 제정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설치신고서, 대표자(사업주)의 신분증, 직인

구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 통장 발급 및 공단 등록 :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계좌개설(공단 수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보조금, 잡수입, 예수금, 퇴직적립금 등),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수가 청구 수령할 통장계좌번호 등록 신청 등

- 시군구 장기요양담당자를 사전에 찾아가서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시설 유형에 따른 조사 검색할 것)

- 재가기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잠금장치 설치,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한다.

2. 시설 및 설비 기준

■ 침실

독신용 · 합숙용 · 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구분해야 한다(단, 부부는 합숙 가능).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단,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침실 1실의 정원이 3명 이하이어야 함).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을 설치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 · 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 식당 및 조리실

다층으로 사용할 경우, 상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출입문 장금장치는 필수이며, 방화문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칼, 가위 등 위험물 관리는 철저해야 하며, 소독기는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 세면장 및 목욕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미끄럼 방지 타일 사용). 변기 주변은 안전바를 세로 또는 가로로 설치, 혹은 변기 주변에 좌우로 설치하되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세면기는 좌우에 설치하거나 세로로 설치한다. 출입구 좌우에 세로로 안전바를 설치한다.

■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 · 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소독기, 산소호흡기 등)를 구비해야 한다.

■ **그 밖의 시설**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 "독거노인의 고독사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논단」 85 (2017): 37–63.

이재모.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복지행정논총」 15(2) (2005): 67–92.

민장배 · 송진영. "고령사회에 따른 교회의 노인복지 선교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9 (2016): 601–6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9.

다음 홈페이지. http://100.daum.net/encyclopedia/vew/v050imc611a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7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제 3 장

노인복지 개념으로서의 노인목회 방법론

한국사회 내 삶의 질 향상 개념에서의 노인목회 실천 가능성
- 시니어클럽과 노인목회

Ⅰ. 시대적 요청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100세 장수시대를 예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생산적인 노인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노인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1]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인빈곤의 문제이다. 2013년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8.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노인빈곤율은 2006년 42.8%에서 5.3%가 증가한 결과이다.[2]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황은 노인 부양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은 가족해체, 노인학대, 노인유기, 노인자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3]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노인 일자리'라는 중요한 주제가 대두되었다.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0%로 전년(59.9%)대비 2.1% 증가하였고, 이들의 근로 희망 사유로는 남녀모두 '생활비에 보탬(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 은퇴한 노인들은 생각보다 긴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재진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노인일자리의 공급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2010년 이후 712.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때,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라 예상된다.[5] 또한 정부의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은 노인복

1) 원영희, "시니어클럽의 현황 및 정책과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vol. 32, no. 2, 525.
2) 김재호, "노후 소득의 중장기 전망과 적정성," 「보건 · 복지 Issue&Focus」 2015, 1.
3) 이현주, "노인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Crisisonomy」 11(7) (2015), 199.
4) 통계청 홈페이지, 2017년 5월 13일 최종접속,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5) 이현주, 199.

지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젊은 세대의 무거운 부양의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시작을 부양대상이 아닌 사회적 활동의 주체로 보는 탈(脫) 부양적 노인복지 패러다임(paradigm)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6)]

교회 역시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만 바라봄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정적 부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생산적이며 활동력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고령화는 교회의 고령화를 가져올 것이며, 교회의 고령화는 교회재정의 감축을 가져올 것이다. 생산적인 노인들을 양산하는 것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리라 예상된다.

Ⅱ. 시니어클럽의 필요성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식적으로 요구되기 이전부터 시범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토대를 만들었다. 시니어클럽은 비단 지역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공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노후 소득 보전 및 보장에 대한 방안을 확대해 왔다.[7)]

특별히 시니어클럽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소득창출 및 보장,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8)] 또한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개인적 ·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인의 소득 보전 및 보장을 통한 빈곤율 감소, 의료비 절감, 정신적 · 심리적 · 사회적 만족,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9)]

Ⅲ. 시니어클럽의 목적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10)] 특히 저소득 고령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및 증진,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한다.[11)]

Ⅳ. 시니어클럽 지정절차

1. 신청자격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의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6) 남기철 외, 2008; 원영희에서 재인용.
7) 위의 논문, 526
8) 위의 논문, 526.
9) 강종수 · 김옥희, 2010; 김미곤, 2007; 이석원, 2010; 이소정 외, 2011; 임재영, 2006; 조준행 2008; 원영희에서 재인용.
10)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3.
11) 위의 책, 37.

2. 신청방법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 단체(시군구)의 해당과에 신청서류(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3. 지정권자

노인복지법 제23조 2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시 · 도 및 시 · 군 · 구)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 · 군 · 구의 장이 지정 가능

4. 지정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신청 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참고문헌

김재호(2015). "노후 소득의 중장기 전망과 적정성." 「보건 · 복지 Issue&Focus」: 1–8.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원영희(2012). "시니어클럽의 현황 및 정책과제: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韓國老年學 32(2): 525–540.
이현주(2015). "노인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Crisisonomy」 11(7) : 197–224.
통계청 홈페이지 2017년 5월 13일 최종접속.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한국시니어클럽 웹사이트 주소

http://www.silverpower.or.kr/ (한국시니어클럽협회)
https://kordi.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http://www.k60.co.kr/(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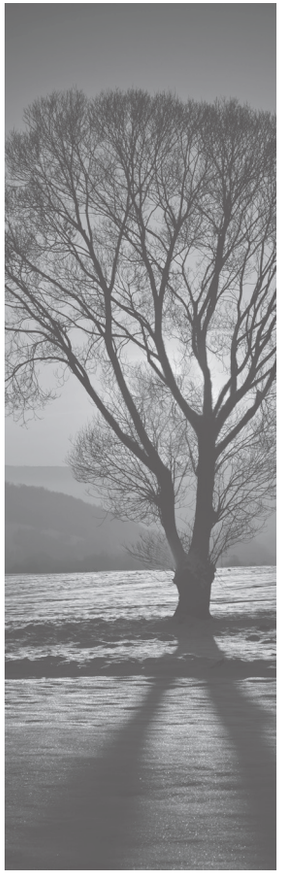
제 4 장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기와 노인목회

– 노년기와 죽음

제 4 장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기와 노인목회



노년기와 죽음

최근 대부분의 교회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대부분 교회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던 분들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노년기는 열심히 살아왔던 삶 이후 은퇴로 인해 찾아온 공허감, 변화한 세대에 적응해야하는 당혹감,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보내는 삶에 대한 무료함,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하기에 불편한 신체의 변화로 인해 느끼는 좌절감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아무도 노년기를 미리 경험한 사람이 없다. 단지 다른 사람의 나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오겠구나!' 생각하며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따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제서 나이가 드는 것을 실감하며 아쉬움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준비한 보험이나 연금이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후를 위한 물질적인 준비 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삶의 진리가 가르쳐 주는 말처럼, 죽음을 위한 준비 또한 필요하다. 노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또한 아무도 미리 경험할 수 없다. 단지 타인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멀리만 있다고 여겨지는 죽음을 오늘의 자리로 가져와서 묵상해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준비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Ⅰ. 노년기와 죽음준비교육

1. 웰다잉(well-dying)의 의미와 사회적 관심의 증가

최근 우리 사회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2016년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도 웰다잉법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편적인 언어가 되고 있다. 이렇듯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게 된 것은 죽음을 기피하는 우리 문화와도 관계가 있다. 즉, 직접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을 타부시하는 문화에서, 웰다잉이란 말은 보다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있다.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웰다잉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는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이 있다. 1970-8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하며 생존을 위해 열심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1990년대를 지나오면서 일보다는 쉼과 힐링을 강조하는 웰빙(well-being)시대를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겪은 분들이 노년층에 접어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웰다잉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웰다잉 교육은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교육이다.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상기하듯이, 죽음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노년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삶의 질보다는 죽음의 질을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웰다잉에 대한 확산을 일으켰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평안히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연명치료를 받는 것이 의사와 가족의 의무로 여겨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97년 보라매 병원사건과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호스피스 시설과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사람들이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한국사회에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자살의 증가도 영향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을 접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 그나마 뉴스를 통해서 자살이나 사고 소식들을 듣게 된다. 이렇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형사고 혹은 자살에 대한 소식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뿐 아니라,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만 다녀와도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고 소식들은 타인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에 대한 진리 중 하나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이나 동양을 막론하고 금기시되어 있고, 마치 우리들은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막상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드리워졌을 때에는 크게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이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오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잘 살기(Well-being)와 더불어 잘 죽기(Well-dying)는 현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하였다. 이 두 주제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주제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사 히노아라 히게아키는 "죽는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1] 우리가 죽음을 저 멀리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

현재 내 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즉,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더 애틋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간혹 교회에서 수련회 등을 통해 모의 유서 쓰기나 입관체험 등을 하는 이유는 죽음의 현재적 체험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폰스 디켄 박사가 '죽음준비교육의 15가지의 목표'를 통해 말한 바 있다.[2] 이는 죽음준비교육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15가지의 목표를 간추려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죽음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될 때가 있다. 죽음교육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게 되는 비탄과 애도의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가 겪게 될 상실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상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인 문제를 배운다. 윤리적인 문제는 자살, 낙태, 안락사,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이며, 법적인 것은 죽음판정, 뇌사, 장기기증, 시신기증, 유언서 작성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실제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죽음준비교육은 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노년기에 죽음준비교육이 더욱 필요한 것은 노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점차 죽어가는 것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살아왔던 일상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러한 불균형한 정서적 긴장은 노인들을 불안과 초조, 분노와 절망에 빠지게 한다. 에릭슨에 따르면, 노년기는 자아 통합을 이루는 시기이다. 결코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닌 죽음을 직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지혜일 것이다. 이렇듯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솔직한 논의와 삶에 대한 정리를 통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필요성 때문이다.[3]

---

1) 히노하라 시게아키/ 김옥라 역,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궁리, 2003), 8.

2) 디켄이 말하는 15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죽음에 이르는 심리변화를 이해한다 (2) 죽음의 의미를 사색한다 (3) 비탄교육에 대해 배운다 (4)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를 줄이고 불안한 심리적 부담을 제거한다 (5) 죽음기피증을 제거한다 (6)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할 방법을 배운다 (7) 말기 암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다 (8) 죽음과 관련되는 윤리적 문제를 배운다 (9) 사망과 의학 및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배운다 (10) 장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11) 주어진 삶이 제한적임을 인식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한다 (12) 죽음의 예술을 배운다 (13) 죽음철학의 탐구 (14) 여러 종교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15) 사후의 생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참고: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 84–91.

1) 죽음에 대한 솔직한 논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 노인들은 죽음에 더 가까운 나이에 있으며 죽음을 직면해야하는 시기에 있다. 그러므로 회피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논의를 피하면 피할수록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는 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논의를 자기 안에 있는 내밀한 구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죽음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솔직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른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성숙하게 해야 한다. 자신의 죽음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죽음 뿐 아니라 삶도 밝아질 것이다.

2) 삶에 대한 정리의 시기

노인은 신체적, 정서적, 성격적, 사회적인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한다. 특별히 신체적 기능의 약화는 노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노년기에 건강하게 살다가 병치레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죽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들은 대체로 오랜 병환 끝에 죽음을 맞이한다. 긴 세월 동안 지병에 시달리는 경우 노년은 지루하고 암울한 삶이 된다.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이 자기의 주인일 수 없는 때가 노인의 마지막 정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이 분명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지혜이다.

정리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물질적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손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족 관계 안에서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며,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정리할 것이 재산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개인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자서전을 통해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남기고, 삶의 관계 안에서 얽힌 문제도 풀어야 한다. 유언서 작성을 통해서 재산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남기고 싶은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

3) 용서와 화해

정든 사람들과의 이별은 죽음을 맞는 노인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다.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 이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화평을 나누면서 감사와 행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의식이 있고 몸이 건강할 때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나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소에 나눌 수 있는 사랑과 감사가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원한의 감정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과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이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배신하는 일은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안고 죽을 수는 없다. 죽음은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죽음을 앞두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늦을 수도 있다. 평소 사랑을 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용서와 화해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화해와 용서는 죽음 이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3) 정진홍, "노인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년), 53-54.

4.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의 실제

노년기 죽음준비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죽음준비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과 제안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회의 실정에 따라 수정해서 사용 가능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의 추가로 죽음준비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다.

1) 죽음준비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 구성[4)]

첫째, 죽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기를 꺼려왔기 때문에 죽음준비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죽음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다. 죽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익숙하게 할수록 죽음이 더욱 친숙해지고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둘째, 죽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 철학, 문학, 예술, 종교,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배움으로써 죽음에 대한 사색과 수용을 도울 수 있다. 특별히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을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죽음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삶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노년기에 그나마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할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좋은 준비이다. 또한,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취 가운데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인생의 교훈을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물질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넷째, 감사와 화해와 용서를 경험한다. 노년기에 필요한 삶의 정리 중 하나는 인간관계이다. 세상을 떠나면서 화해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안은 채 떠나는 것은 살아온 삶 전체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남겨질 가족과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먼저 1회 특강으로는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존엄한 삶과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등으로 할 수 있다. 2회, 3회, 4회 연속 강좌도 가능하다. 4회 이상의 강좌를 할 경우에는 전문 기관과 협의하여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강의 보다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강의를 포함하면 좋고, 법률전문가의 유언과 상속에 관한 강의도 노인들의 관심이 크다.

2) 유언서 작성

유언은 단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느꼈던 생각들,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못다 이룬 꿈, 후회되는 일, 감사의 말, 작별 인사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신앙적인 유산에 대해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유언서는 다음과 같은

4) 유경,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실제"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년), 100–105.

순서로 작성을 해 볼 수 있다.

(1) 인생을 정리하며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
(2) 인생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
(3)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4) 장례절차 혹은 유품정리에 관한 말
(5)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꼭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프로그램화하여 작성하는 유언서가 법적으로도 유용한 자필 유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항목이 있다.

3) 나의 사망기 작성하기

'나의 사망기' 작성은 미국의 신문 부고기사(Obituary)의 형식을 빌려 자신을 3인칭으로한 부고(訃告)기사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죽음준비교육의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고기사는 지역신문을 통해 유명한 사람들의 부고를 싣기도 하지만, 유료광고로 부고를 알리는 기사를 쓰기도 한다. 기사에는 고인이 생전에 하던 일이나 직업, 사회에 공헌 한 일, 업적, 고인이 남긴 말, 사망원인, 유가족, 장례절차 등이 소개된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나의 사망기'를 작성해 보면 현재 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의 사망기'와 비슷한 활동으로 '묘비명 쓰기' 활동도 추천해 본다.

4) 장례의향서 작성하기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병원과 장례업체가 주도하는 문화로 전락되었다. 장례가 상업화되면서 상실로 인한 비탄의 과정에 있는 유족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정작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문화는 이들의 상업화 속에 가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미리 의사를 밝힌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거나 상업화에 희생되지 않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면서도, 고인의 삶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례식이 될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한 사전장례의향서가 있다. 사전장례의향서에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화장이나 매장 방식과 장소 결정, 장례절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예배 순서와 관련하여 장례 집례자와 부르고 싶은 찬송도 미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이나 음악도 준비하여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죽음이 예견될 때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 미리 하는 장례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자서전 쓰기

자서전이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회고와 반성 등을 담은 인생전기이다. 자서전은 어떤 특정인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서전을 남길 수 있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고, 상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연령대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가족사를 기록할 수도 있다.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를 돌아보는 것은 노년기 행복에 중요한 공헌을 한다.[5] 그것이 글로 남겨질 때 후손들에게는 중요한 유산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성공적인 적응과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남은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 자서전을 쓰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6] 개인적인 의미에서 자서전 쓰기는 1) 자신의 삶을 재의미화하는 것을 돕고, 2) 존재의미를 재발견 할 수 있으며, 3) 관계의 정리와 감정을 해소할 수 있으며, 4)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을 찾아낼 뿐 아니라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전략과 해결방법을 돌아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서전 쓰기의 의미는 1) 가족의 역사를 전수할 수 있으며, 2) 개인의 역사 기록이 당시 역사적 시기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3) 인생의 지혜를 전수할 수 있으며, 4) 세대를 잇고 전통을 전수할 수 있다.

노년기에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면, 글로 쓰는 자서전 대신에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사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그 외에도 죽음준비교육은 삶의 교육이기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실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매일매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삶, 다른 사람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일, 지금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메일 답장을 하루 이상 넘기지 않는 것, 자원봉사 활동,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한 버킷리스트(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다른 나라 언어 배우기, 세계여행, 명소기행 등)를 작성하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5) 한정란, "인생회고: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년), 120.

6) Ibid, 116.

II. 노년기 상실과 애도

1. 노년기 상실과 애도의 필요성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실을 경험한다. 모든 상실은 무언가 자신에게서 소중한 것들, 즉 사람, 물건들, 관계들, 역할들, 추억들과의 분리를 야기한다.[7] 대개 어린 아이들이 겪는 첫 상실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관계와의 분리이며, 어른들이 겪는 상실의 경우에는 직업의 변화, 이혼, 은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상실의 경험들 중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다. 이러한 상실로 인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의 격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1983년에 출판된,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모든 상실과 모든 슬픔)라는 책에서 미쉘과 앤더슨(Kenneth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은 인간이 겪는 모든 상실의 종류를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였다: 물질적인 상실(Material Loss), 관계적 상실(Relationship loss), 정신내적 상실(Intrapsychic loss), 기능적 상실(Functional Loss), 역할의 상실(Role Loss), 공동체 상실(Systemic Loss).[8] 여기에 폴린 보스(Pauline Boss)가 말하는 모호한 상실까지

7) Peter Mwiti, Understanding Grief as a Process (Nairobi: Uzima Press, 2003), 2.

8) Kenneth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36–46.

포함할 수 있다. 모호한 상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치매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정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체가 없는 경우로, 납치와 실종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일곱 가지 종류의 상실을 모두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질적인 상실은 은퇴로 인해 줄어든 수입이 대표적이며, 관계적으로는 황혼의 이혼이나 사별을 들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은 융통성이 없어지고 경직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정신내적 상실은 자신의 꿈, 이미지, 자아정체감 등의 상실을 말하는데 노년기에는 자신이 생각해왔던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감에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노화와 신체기능의 약화는 건강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할 때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 신체적인 기능 상실은 앞서 노년기의 변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체적인 기능과 시각, 미각, 후각, 촉각 등 감각기능의 상실을 말한다. 역할의 상실은 노인들에게 종종 절망감, 외로움, 수치감 등을 느끼게 한다. 남성들의 경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혼란이 생기게 될 수 있고, 여성들은 자신이 속해서 활동했던 봉사단체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해왔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65~70세가 되면 자신이 했던 봉사나 직책에서 물러나 젊은 교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점차 교회활동과 멀어지게 된다. 이렇듯 죽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상실 외에도 노년기에 겪는 상실의 종류는 다양하다. 상실에는 상실에 대한 반응이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 인지, 신체, 행동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상실 초기에는 비탄의 과정으로 충격과 무감각을 동반하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들의 경우 겉으로 무감각하게 보이는 것은 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이다. 신체적으로 겪는 반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말수가 줄거나, 무언가에 몰두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상실에 대한 행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상실의 슬픔과 고통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윌리엄 워든(William Worden)은 애도의 네 가지 과업을 제시하는데, 이는 유가족들이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며, 고인이 없는 환경에 적응하고, 삶 속에 고인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말한다.[9] 이러한 애도의 과정은 지속적으로 상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콜(Cole)은 애도를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관계들을 위한 감정적인 노력이며, 삶에 대한 다른 관점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실한 것과의 관계가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고 말한다.[10] 애도는 분명히 지속적인 슬픔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상실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공허감을 안은 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이 다양하듯 사람들이 겪는 애도의 과정 또한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개인의 비탄과 애도의 경험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상실한 대상과의 관계성, 과거 상실의 경험들, 신앙의 정도, 공동체성,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죽음의 유형 등 슬픔과 고통의 정도와 길이의 차이를 만드는 여러 가지 개인적, 문화적 요소들이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상실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삶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의 전

9) William Worden,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4th E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2009), 39–50.
10) Allan Hugh Cole/윤득형 역, 『굿모닝: 알렌박사가 말하는 슬픔치유』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7), 23.
11) Kelly, Melissa M. Grief: Contemporary Theory and the Practice of Ministr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0, 6.

문적인 상담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별자들이 겪는 상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실제적인 도움과 위로를 위한 바른 접근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로를 주기 위해 건네는 말과 행동이 도리어 상처를 줄 수도 있다.

2. 사별슬픔 회복을 위한 목회 돌봄

1) 미성숙하게 의미부여하는 것을 피하라

의미는 상실을 경험한 본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찾는 것이다. 주변에서 미성숙하게 하는 위로의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 미성숙한 위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언해 주는 것이다. 사별자는 상실로 인해서 가족, 의료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고 물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소리칠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외침은 신앙이 흔들려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일 뿐이다. 답을 주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존중의 마음과 공감적인 표현으로 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2]

특별히 어떤 형태로든 답을 주게 되면, 사별애도자의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하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13] 슬픔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또한 적당한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서 쓰게 되는 성격적이거나 신앙적인 언어가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별자들에게 있어서 신앙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도움의 원천이다. 하지만, 미쉘과 앤더슨은 경고하기를 "모든 것이 곧 나아질 거야" 또는 "하나님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줄거야" 등의 미성숙한 위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14] 이러한 그럴듯해 보이는 대답은 차라리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 못하다.

2) 함께하기

사별로 인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신앙공동체는 사별의 과정에서 병원에 있을 때에 기도뿐 아니라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상실 초기에 음식을 해주거나 일상의 회복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방문'이나 여러 가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문자적으로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진실한 마음으로 옆에 있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삶의 위기적 순간에 영적인 누군가가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가까

12) 윤득형, "사별애도를 위한 영적돌봄과 의미만들기 이론: 자녀를 잃은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3(2017), 433.

13) Ibid, 434.

14) Mitchell and Anderson, 122.

이 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사별 이후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애도상담 학자이며 상담가인 알렌 울펠트(Allan D. Wolfelt)는 상담을 치료(treatment) 과정이 아닌, 동반(companion)으로 이해한다.[15] 치료는 진단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기본 원리라면, 동반한다는 의미는 아픔과 슬픔을 겪는 사람 곁에 전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16] 그의 동반하기를 위한 11가지 원리를 통해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1. 동반하기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2. 동반하기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거친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동반하기는 영적인 면을 존중한다. 단순히 지식적인 면에 의지하지 않는다.
4. 동반하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이는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5. 동반하기는 다른 사람의 힘든 과정에 함께 있으면서 판단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다.
6. 동반하기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이다.
7. 동반하기는 매 순간을 말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거룩한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다.
8. 동반하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떠들썩한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9. 동반하기는 혼란과 혼동되는 상황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억지로 정돈과 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10. 동반하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11. 동반하기는 경험적인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15) Alan D. Wolfelt, The Handbook for Companioning the Mourner: Eleven Essential Principles (Fort Collins, CO: Companion Press, 2009), 2.

16) Ibid, 2.

3) 지속적인 관심 갖기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주고, 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상실 초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 나가는 것과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이때,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배나 모임에 나오도록 격려한다면 상실회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아직 감정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언젠가는 그 손을 잡을 날이 있을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관심은 사별자를 이끌어 회복과 삶의 의미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별자의 상실 회복을 돕는 데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신앙공동체와 목회자의 역할이 사별슬픔을 겪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별슬픔을 겪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 중, '사별의 슬픔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한 문항에 응답자들은 "예배를 통한 치유

와 회복"을 첫 번째로 꼽았다.[17] 예배를 통한 말씀, 성경공부, 성경통독, 제자훈련 등 신앙공동체 안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신앙공동체는 사별자들에게 안전한 애도의 여정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사별자들을 위한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신앙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애도의 과정을 잘 겪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18]

4) 의례 활용하기

의례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변화가 필요하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 더욱 그렇다.[19] 의례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을 인지하고, 슬픔을 극복할 길을 제시해 주며, 죽은 대상과의 영적인 결속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특별히, 장례예배는 모든 가족들을 비롯하여 공동체 일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죽음을 공인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죽은 이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만날 희망을 얻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20] 이러한 의례가 치유와 변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개인화(personalized)되고, 특별화(specialized)되어야 한다.[21] 모든 죽음은 각기 다 다르다. 특별하다.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는 사람도 없다. 개인적 혹은 가족적 상황에 맞는 특별한 의례는 사별자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도카(Doka)의 말처럼, 모든 슬픔치유를 위한 의례는 죽은 사람과의 지속적인 결속을 강조하며 지난 삶을 기리는 역할을 한다.[22] 개인의 삶을 기리고 추억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지속적인 결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인화와 특별화를 통한 창조적인 의례가 필요하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사별애도의 기간이 평균 1년 정도가 되기에 일주기 추모식(예배)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23] 미국의 문화에서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을 무렵에 메모리얼 서비스(memorial service)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는 모임이다. 한국에는 삼일 안에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 고인을 추억하고, 삶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없다. 특히, 상실 초기 며칠 동안은 급격한 슬픔에 무감각과 혼동을 경험하는 때이다. 이 시기에 장례절차가 다 끝나버리니 실제 의례가 줄 수 있는 치유적인 효과를 경험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기에 비탄과 애도의 과정을 겪은 후에 별도의 모임이 필요하다. 추모 1주기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가까운 사람들을 모시고, 교회나 적절한 규모의 장소에서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특별한 모임은 유가족들 마음을 다시금 위로할 수

17) 이창규,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53(2017), 316-317.
18) 이창규, 331.
19) Tom Driver, Liberating Rite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itual (Boulder, CO: Westview Press, 16.
20) Allan Hugh Cole/윤득형 역, 85-89.
21) Kenneth J. Doka, "The Spiritual Crisis of Bereavement," in Death and Spirituality, eds. Kenneth J Doka and John Morgan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1993), 187.
22) Kenneth J. Doka, "The Power of Ritual: A Gif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Living with Grief: Children and Adolescents, eds. Kenneth J. Doka and Amy S. Tucci (Washington, DC: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 2008), 292.
23) 필자는 1주기 추모예배의 필요성과 교회의 메모리얼룸 확보에 관해 『슬픔학개론』에서 보다 많은 논의를 하였다. 참고: 윤득형, 『슬픔학개론』 (서울: 샘솟는기쁨, 2015), 235-240.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1주기가 되기 전 목회자는 이 시기를 기억하고 사별자에게 편지, 카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미리 묻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옥라. "죽음준비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

유경.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실제"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년.

윤득형. 『슬픔학개론』. 서울: 샘솟는기쁨, 2015.

윤득형. "사별애도를 위한 영적돌봄과 의미만들기 이론: 자녀를 잃은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3(2017), 411-438.

이창규.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신학과 실천」 53(2017), 305-336.

정진홍. "노인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 53-55.

한정란. "인생회고: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웰다잉 교육 매뉴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죽음』 4쇄 증보판 (서울: 각당복지재단, 2015년).

히노하라 시게아키/ 김옥라 역. 『죽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 궁리, 2003.

Cole, Allan Hugh /윤득형 역. 『굿모닝: 알렌박사가 말하는 슬픔치유』.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7.

Doka, Kenneth J. "The Power of Ritual: A Gif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Living with Grief: Children and Adolescents, edited by Kenneth J. Doka and Amy S. Tucci, 287–295. Washington, DC: Hospice Foundation of America, 2008.

Doka, Kenneth J. "The Spiritual Crisis of Bereavement." In Death and Spirituality, edited by Kenneth J. Doka and John Morgan, 185–193. New York: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1993.

Driver, Tom. Liberating Rite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itual. Boulder, CO: Westview Press, 1988.

Kelly, Melissa M. Grief: Contemporary Theory and the Practice of Ministry.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0.

Mitchell, Kenneth, and Herbert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3.

Mwiti, Peter. Understanding Grief as a Process. Nairobi: Uzima Press, 2003.

Wolfelt, Alan D. The Handbook for Companioning the Mourner: Eleven Essentail Principles. Fort Collins, CO: Companion Press, 2009.

William Worden,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4th Edi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2009.